



時計塔

SIGETOP



2009년 4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6권 2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尹孝允 편집위원: 徐亮 盧在煜 李惟贊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편집인: 金炳哲 徐仁錫 李元澤 許善行

The 26 th 2009 ANNUAL CONVENTION



July 4 (Sat) ~ 8 (Wed), 2009 Ritz Carlton Hotel

300 Town Center Drive, Dearborn, Michigan
Room Rate: \$125.00

Golf: Lakes of Taylor Golf Course, Dearborn Country Club, Western Golf & Country Club

**Invitation of Alumni Artists and family member for
Art Exhibition during 2009 Annual Convention**

**July 4 (Sat) ~ 8 (Wed), 2009
Ritz Carlton Hotel**

**Paintings, Photographs, Ceramics
and any other Art Work are welcome**

Please contact Dr. Harold E. Joh(66)
Tel: (248) 644-8351 Email: euiyoljoh@hotmail.com

학술대회를 후원하신 동문명단

김정준(52) 125	김형건(53) 150	정구영(57) 125	유치열(58) 125	서경화(59) 125
최대한(59) 125	박준환(61) 125	장성환(61) 75	구정윤(62) 125	남성희(62) 50
장정수(62) 125	이영웅(62) 175	김태형(63) 100	김현철(63) 100	이기황(63) 125
박세복(63) 100	조열하(63) 125	조한원(63) 125	김태환(64) 100	선우세현(64) 125
이홍표(64) 3,000	임대목(64) 125	이한중(65) 1,000	문광재(68) 1,000	김병오(69) 100
윤효운(69) 2,000	김창구(71) 325	오동환(71) 1,000	조세진(71) 300	Total 11,100

회장 윤 호 윤(69) 248-338-2613

총무 오 동 환(71) 248-855-1109

재무 장 연 웅(78) 248-932-1136

학술준비위원장 장 현 식(70) 248-334-9829

컨벤션준비위원장 이 태 석(67) 248-625-8909

이 민 우(67) 248-338-3135

2008-2009 제2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09년 4월 4일(토요일) 오후 6시
장소: Restaurant Shiro / 43180 West Nine mile Road Novi, Michigan

참석자:
조명호(62) 이한중(65) 황규정(65) 조의열(66) 이태석(67) 문광재(68) 윤효운(69)
이성춘(70) 장현식(70) 김유식(71) 오동환(71) 장연웅(78)
Proxy:
노용면(55) 이만택(58) 이운순(58) 김병석(59) 김은섭(59) 한혜원(61) 이재승(61)
한기현(63) 김태웅(63) 이흥표(64) 조동준(64) 이상무(64) 한태진(64) 이유찬(64)
이명희(66) 최영자(66) 이근웅(67) 곽승용(71) 강태수(71) 오상현(71) 오용호(72)
황용규(72) 서인석(73) 문대옥(73)

1. 오동환 총무의 성원 (45/53) 보고 (총 53명중 18명 참석과 27 Proxy- 8명 겸직) 와 개회 선언.
2. California 에서 오신 차기 회장 이성춘 동문의 소개와 환영
3. 2008-2009 제1차 이사회 초록을 수정없이 동의, 재청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4. 윤효운 회장보고
 - a. Summer Convention의 program이 완료 되었음을 보고.
 - b. Convention 연사 : 22명이 모두 확정되었고, 몇 명이 추가로 준비되어 있음을 보고.
 - c. 이번 Convention에 12 hours의 CME credit이 approve 됐음을 보고.
 - d. Financial concern: 전체 경제사정이 악화 됨에 따라, 우리 동창회 회비납부 (현재 474명- 예년에 비해 50-60명이 줄어듬)와, Summer Convention을 위한 fund raising (현재 \$7,800- 예년 \$12,000)이 많이 줄었음을 보고하고, 동창 제위들의 동창회비 납부와, convention을 위해 많은 financial Donation를 촉구.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한중 전 회장님이 부연하심. 특히 이곳 미시간에 계시는 동문들께 많은 Donation(\$500-\$1,000)을 권고함. 오동환, 이한중 동문이 \$1,000씩 도네이션 하심.
 - e. 이번 12월 7일에서 9일까지 텍사스 휴스턴에서 개최되는 KAMA convention 에 대한 현 KAMA 회장이신 김우신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 회비(\$100)와 early registration fee(\$350) 많은 도네이션을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심.
 - f. 차기회장 이성춘(2009-2010)동문에 이어서 2010-2011년도 회장은 뉴욕지부 정인용(71)동문이 수락하셨음을 알림.
 - g. 전체 미주 서울대동창회 회지에 '자랑스런 의대인'으로 조세진(71)동문을 추천하심을 보고. 4월달 회지에 기사가 실릴 예정.
 - h. KAMA와 전체 서울대학교 동창회 참여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음.
- 이한중 동문: 전체 미주서울대동창회 미시간지부 설립을 생각해 보도록 권고.
- 장현식 동문: 전체 미주서울대동창회 회장 이진구씨를 이번 컨벤션에 초청하도록 제의.
5. 총무 (오동환): 보고사항 없음
6. 재무 (장연웅) 보고:



- (a) General Fund Financial report 제출: 3월 31일 현재 Balance는 \$75,993
 - (b) Annual convention Financial report 제출: 3월 31일 현재 Balance는 \$3,975
 - (c) Green project Financial report 제출: 3월 31일 현재 Balance는 \$19,121
 - (d) fund donation 명부 제출.
- Financial reports를 review한 후 만장일치로 가결함
7. Committee reports
 - 1) Finance(오상현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2) Scholarship(오용호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3) Fund raising(권영조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 4) Scholarship Fund Management(이명희 위원장)- 현 Scholarship Financial Report (3/26/09) 제출. 3/26/09 현재 Total Fund balance는 \$281,241
On going financial crisis로 전년에 비해서 fund가 많이 줄었음을 보고. 지난 해 (3/11/08) 에는 \$414,447, 지난 연말에는 \$289,399. 연초부터 지금까지 2.8%가 줄음 (대비 S & P: -10.1%)
 - 5) Research and Fellowship(한혜원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6) Publication Committee(김병석 위원장)- 3월 18일날 있었던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토의되었던 사항을 보고.
- 시계탑의 영문 투고에 대해서: 이제껏 지키던 Policy (원칙적으로 영문 원고는 게재 않는다. 예외: (1) article written by second generation children of alumni, born in USA (2) Eulogy for Dr. N. L. Gault, Jr (Professor of Minnesota University) 를 계속 유지하도록 결정.
- 만약 영어로 된 Article이 보내져서 시계탑에 게재하기로 결정될때에는 second generation children of Alumni in New York area가 edit을 하기로 결정함.
- 올해가 시계탑의 35th Anniversary이고 이를 계기로 5년 마다 발간되었던 시계탑 문집 제4집을 발간하기로 함. 한 투고자당 최대 2 article을 실을 예정이며, 여기에 실리는 기고자는 각자 \$200을 contribution하기로 함. 이 문집을 출판하기위한 비용으로 이사회에 \$8,000-\$10,000을 도와줄 것을 요구.
- 이 안건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토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동창회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지금은 결정 못하고, Annual Convention 이후에 다시 토론해서 결정하기로함.
 - 7) Green project (서인석 위원장)-
- Green Project Committee의 새 Chair로 William Baek(99) 동문이 되심을 알림.
- 서울 본교에서 뽑은 졸업반 학생 11명의 명단을 받음. 7명은 미국으로 오고 4명은 다른 나라로 가기를 원함. 추후에 final list를 받을것임.
- Scholarship Committee에서 summer elective가 결정되기 전에 빠른 시간내에 scholarship 결정을 내주시길 촉구.
- MEXIM 2009년도 operating expenses \$4,000를 request. 이사회에 보고후 통과.
 - 8) By Laws committee (노용면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 9) Advisory & Exchange Committee (이만택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 10) Nominating Committee (최영자 위원장)- 차기 회장으로 정인용(71)동문이 추천됨을 보고.
 - 11) Office Management Committee(곽승용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12) Silver Project Committee (한기현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13) Charity Committee (황용규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14) Convention Committee (이태석 위원장, 이민우)- 보고사항 없음
 - 15) Convention Scientific Chair (장현식 동문)
- 4월달에 convention program이 시계탑에 게재될 것임.
- Scientific program은 3일 동안 매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매일 8강사가 30분씩 강의를 하도록 할것임.
- CME credit: 12 hours.
 - 16) Counselor(이한중)- 미시간에 계시는 동문들께 annual convention을 위해서 많은 도네이션(\$500-\$1,000)을 권고함. -Respectfully submitted by 총무 오동환

남가주지부 신년하례식및 정기총회

2009년 1월 31일 오후 다섯시 반에 Oxford Palece 호텔에서 서울의대 남가주동창회 총회 및 신년 하례식이 열렸습니다. 참가인원은 120명 정도였으며 클래식 음악과 화려한 댄스가 들어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동문 모두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영석 이사장님의 3년간의 이사장직이 끝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감사패로 서영석(이사장), 이희영(전 회장), 라두섭 동문 등이 받았습니다.

새 임원진은 권영조 이사장님과 김성환 회장(재임), 차민영 부회장, 고용규 재무, 조형기 총무입니다.

새해 계획은 새 주소록을 만드는 것으로 조형기 총무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관심을 보여주신 동문 여러분 특히 김일영, 이원택, 고용규, 차민영 동문 그리고 71년 동기생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권영조 새 이사장님과 모든 동창들이 합심하여 더 좋은 동창회를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 남가주 동창회장 김성환



차기 회장단 집행부 모임

2010년도 미주동창회 회장단과 임원진이 지난 3월 6일 로스앤젤스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임원들 거의 전부가(건강상의 이유로 2명 불참)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토론과 행사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 미국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내년에는 상황이 다소 달라지기를 바라며, 우선 알차고 재미있는 컨벤션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임원들 모두가 다 짐하였습니다. 왕복 네 시간이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와주신 임원과 또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모든 임원들에게 이성춘 차기회장이 감사의 말을 전하며 모임을 밤늦게 마쳤습니다.

정두현(61)동문 시인으로 정식 데뷔

정두현(61) 동문이 본국에서 발간되는 월간 문예지 '시문학' 신인상에 당선돼 시인으로 정식 데뷔했다.

지난해 '시향 2008'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정동문은 '지리산 1958' '행려병자' '알코올 중독자' 등 잊혀진 전쟁의 비극과 사회소외계층을 다룬 사회성 짙은 3편의 시로 당선된 영예를 안았다.

정동문의 당선작은 시문학 3월호에 게재되었으며 "매일 마주치는 환자들, 조용히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 의사와 간호사, 그들의 삶 속에서도 시를 건져 내고, 또 우리 선조들의 역사, 문화에서도 시를 건져올리고 싶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당선작 지리산, 1958년을 소개한다.

지리산 동양화 속 바위 밑에 놓여 있는 사람의 뼈 / 반세기가 지났어도 / 노고단에서 천왕봉으로 가는 등산로 / 한적한 바위 밑에 / 해부학교실에서 처럼 놓여있던 탈육한 뼈 / 아무런 손상도 없이 / 허리쯤에 핵대와 버클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뼈 / 한국전쟁이 끝난 5년째 될 무렵, / 5년은 그렇게 인간을 풍화작용할 수 있을까 / 반신반의하며 / 누군가 그를 이 산 속에서 죽였을까 / 납부군이었을까, 국방군이었을까 / 그도 어머니의 사랑스런 아들이며 / 한 처녀의 연인이었을 텐데 / 그를 바위 밑에 누이고 떠난 착한 청년의 친구였을 텐데 / 지리산 정상에서 하얀 뼈로 발견된 죽음

Scientific Convention Speaker Roster

Doyeong Hwang, M.D.
Hamchoon Women's Clinic,
Hamchoon Institute of Fertility and Genetics

Young Choi, M.D.
Professor of Pathology;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Yung A. Chung, M.D.
Deputy Medical Examiner
Washtenaw & Lenawee Counties

S. Brian Kim, M.D.
Co-Directors-Respiratory Department
Cox Medical Centers; Springfield, MO

Hongpyo Henry Lee, M.D., F.A.C.C.
Chief, Section of Cardiology,
Harbor City Kaiser Medical Center, CA

Christopher Kim, M.D.
Dept. of Cardiovascular Medicine
University of Texas Medical School at Houston

David Soosang Kang, M.D.
Director, YF Scientific, LLC, Naperville, IL

Chulso Moon, M.D., Ph.D.
Professor in the Dept. of Oncology, Ot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John Hopkins University

Chang Ho Suk, M.D.
Clinical Instructor, Weill Medical College of Cornell
University, New York, NY

Hie-Won L. Hann, M.D.
Professor of Medicine,
Jefferson Medical College

Chong Jai Kim, M.D.
Dept. of Pathology;
Wayne Stat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 Edmund Kim, M.D., M.S.
Prof. of Radiology & Medicine, Univ.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and Medical School: TX

Clara HwanG, M.D.
Henry Ford Health Systems, Senior Staff Physician

Yong Ho Auh, M.D., Ph.D.
Professor of Radiology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Joon Lee, M.D.
Family Practice; Atlanta, GA

ReV. Sung Ho BaE, M.D.
Clinical Asso. Prof. of Neurology; Dept. of
Neur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Hikon Chon, M.D.
Assist. Professor of Radiology, Medical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Sok Kyu Lee, M.E., M.A.
Staff Physician in Pediatrics and Allergy;
S. California Permanente Medical Group, South Bay

You-Young Kim, M.D., Ph.D.
Professor, Dep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won Kang, M.D.
Dept. of Dermatology, Johns Hopkins Medicine,
Baltimore Maryland

Jungil Park, M.D., Ph.D., F.A.C.S.
Assis. Professor, ChoongAng University 1975-1977;
Clinical Assis. Professor, Indiana University

Tai June Yoo, M.D., Ph.D.
Dept. of Medicine, Molecular Medicine,
Otolaryngology and Neuroscience Institute;
University of Tennessee, Memphis, TN

미네소타대학의 서울대지원 대책 (Minnesota Project) 의 일환으로 1959년 부터 1961년 사이에 서울대 의대에서 명료한 강의와 넘치는 인간애로 인상을 실천으로 가르쳐 많은 학생들에게 감명을 주었으며 그후 계속해서 서울대 뿐 아니라 한국내 다른 대학과 동남아 다른 나라들의 의학 발전에도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은퇴후 까지 계속했던 전 미네소타대 의대학장 Dr. Neal

Gault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우리 서울의대 미주동창회는 1994년 6월 23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Dr. Gault를 Honorary Member로 추대하바 있습니다.

사진은 추모사를 쓴 최용성(61)동문과 62년 동문들이 Dr. Gault와 함께 무의촌 진료시 찍은 것들입니다.

Our Beloved Dr. Gault Passed away

I first met Neal Gault in 1958 when I was a junior medical school studen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Neal was giving a lecture on how to approach patients with arthritis. There were 120 of us students who were quite impressed by the new American style of lecture. I remember him as a tall and handsome American who was very popular among the faculty and students for his openness and friendliness. After the lecture, I asked if I may visit him in his office. Neal readily agreed with his characteristic graciousness. That started our long and close friendship that lasted until I last saw him on December 8th.

I would like to share some memories of my friendship with Neal since that first meeting.

When Neal undertook his two year assignment to help develop medical education in Korea, the country was recovering from the devastating Korean War. Korea was unstable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It was a courageous venture for Neal and Sarah to bring their young family to Korea at that time. Sarah's mother was especially concerned

But quite the contrary, they were not at all intimidated but excited to learn about a new country and its people. While other Americans lived in a separate foreigners' compound, Neal moved his family to housing where Korean faculty and students could visit freely without the harassment of security check points.

Neal, who had never lived in Asia, was freely adventurous while living in Korea. He never looked down on others but respected and appreciated all cultures and people. One summer Neal invited me to accompany him and a group of medical students visiting rural farm communities without doctors. The townspeople were thrilled to be examined by the tall, friendly Yankee physician. In the village, Neal was undaunted and took bath in the public bathrooms with us and farmers. He ate everything offered him. But Sarah, as a mother, was extremely careful about food because parasite infestation was common then. Ironically, she was the only member of the family found to have pinworms on physical check-up when they re-turned to the US.

It was quintessentially characteristic of Neal and Sarah to be welcoming to any students who wanted to improve their education. While they lived in Korea, I was frequently invited to dinner at their warm and friendly home. Furthermore, they invited me to stay in their home for 3 months so that I could learn English better and get accustomed to American ways.

Two-year old Paul was my roommate. He never complained, but hummed to himself when following me on long walks. Today that little boy is an MIT and Harvard MBA-graduate!

Neal was instrumental in bringing me to the University of Minnesota where I was accepted into graduate school.

He advised me to study Biochemistry before internship and introduced me to Charlie Carr who became my kindly and patient advisor.

When I arrived in Minneapolis in 1962, I had only \$50 in my pocket. Neal picked me up at the airport and after a day or two I was placed in Centennial Hall

in front of the U of M hospitals. Neal and Sarah gave me \$100 as a graduation gift. Thanks to them I could concentrate on studying and not worry about living in a strange land. Most importantly, they supported and encouraged me throughout my studies.

I became like a family member. Whenever the dormitory emptied for holidays such as Thanksgiving or Christmas, Neal would come to pick me up to stay with his family every year until I finished school. I remember him waiting for me in front of the dorm after work, pacing leisurely while smoking his pipe. He was always cheerful and encouraging.

When I received my PhD in 3 years, all I possessed was a typewriter but no money to buy clothes. Neal took me to an expensive men's shop in Dinkytown and bought me a nice suit for my graduation ceremony. He was very pleased to see me graduate so quickly.

After graduation, I took Pediatric residency at the U. of M. Hospitals during which time I met Dr. Robert Good who made me an immunologist. Thanks to the generous support of these mentors, a small town country boy from Korea became a full professor of Immunology at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Cornell University Medical School, in the big city New York, just eleven years after arriving in America.

However, without Neal's help and support, I would have never been on the path to success to begin with. I and numerous other foreign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re indebted to him for his mentoring and introducing us people who were significant in our professional development.

When he retired, Neal did not sit at home but continued living a very active life devoted to fund raising for the Minnesota Medical Foundation. Paying his own way, Neal and his colleague, Gary Hargrove, traveled the country, including to New Orleans where we enjoyed dinner at Commanders Palace, among other things.

I found several remarkable virtues in Neal through our long friendship.

He was an absolutely honest and understanding fellow. I never saw him angry or depressed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 Despite the many stresses and aggravations of a dean's job, Neal took care of Sarah at home for 20 years while she was ill. It takes a person of exceptional character to remain steadfastly dedicated to the care of a loved one at home for a prolonged time.

In explaining his devotion to his father, Paul said that his parents always taught their children that despite any hardships, 'you do what you have to do.' Paul set aside everything when Neal was diagnosed with cancer, moved back home, and took care of his father until his last day.

My family and I consider ourselves blessed to have known Neal Gault and his family over these 50 years, a whole half century! We have visited each other frequently or by phone almost every other week for fifty years. He was a rare individual who believed in giving to others, above all. He lived his belief that heaven is here on earth through good things we do for one another. There are many of us who are beneficiaries of his philosophy of life.

I will have many fond memories to cherish for the rest of my life!

Yong Sung Choi, M.D., Ph.D.



Green Project Corner

2000년 동형근 회장님의 임명을 받아 Green Project를 시작하지 벌써 8년째가 되어간다. 조형기(92) 등 모든 위원들의 열성으로 이제 굳은 땅을 뚫고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오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가장 큰 수확으로는 모교 3, 4학년이 주동이 되어 설립한 'MEXIM' 동아리를 꼽을 수 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신경과 전문의 백시한(99) 동문이 바톤을 이어갈 예정이다. 젊은 패기와 열성으로 하루빨리 탐스러운 꽃 봉우리가 맺어지고 또 머지않은 장래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만개하기를 바란다. - 대뉴욕지부 서인석(73)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께 올리는 글

전 인 표(본과 4학년)

2007년 More Experience In Medicine의 첫 글자를 따서 MEXIM이라는 모임이 생긴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자 모인 저희에게 지지와 도움을 주신 Green Project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벌써 17명의 선배들이 이 동아리를 거쳐 졸업을 하였고 14명의 재학생이 활동하는 등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몇몇 큰 행사를 가졌고, 11번의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행사로는 첫 번째로 13명의 연사가 참여한 의학연구 경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내의 클러킵이나 인턴쉽 경험을 재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용공 선배님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MBA, MPH, Research Fellow의 다양한 경력을 쌓으신 선배님에게 가르침을 얻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11번의 정기모임에서는 논문리뷰, 증례토의, Survival English time, USMLE 공부 등을 통해 의학적 지식이나 영어 회화 능력 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동아리 홈페이지에 미국 전역의 지역별 해외연수 가능 대학들과 지원 정보를 정리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학술적인 것 외에 동아리 친목도모를 위해 홈커밍데이를 하여 공보의 혹은 인턴을 하고 있어 자주 보지 못했던 반가운 선배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9년 새해는 지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것은 남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여 동아리가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틈을 틈틈이 MEXIM 회원뿐만 아니라 서울대의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접하고 과감히 새로운 곳에 뛰어든 데 도움을 주는 나무가 되려 합니다. More Experience In Medicine이라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세웠습니다.

1. 정기모임

- History Taking & Physical Exam Session

의사의 기본 소양인 병력청취와 진찰을 연습하고 그 과정을 영어로 진행함으로써 가깝게는 KMLE CPX 및 USMLE Step 2 CS 를 대비하고 멀리는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한 명이 환자 역할을 하고 한 명이 진찰을 하며 나머지 회원이 병력청취를 하며 이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작성한 의무기록을 발표하고 증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 Topic Review Session

발표자는 자신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를 영어로 발표하는 연습을 하며, 그 외의 회원들은 다양한 의학적 주제를 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Medical Issue Discussion Session

의학계의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NEJM에서 제시하는 이슈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토론함으로써 새로운 이슈를 접하고 영어로 토론 및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 Lecture Session

졸업한 선배들이나 외부 강사에게 배움을 얻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의대생의 경력개발이나 Curriculum Vitae 작성을 위한 강연, 연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강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된 정기모임을 격주로 진행하여 한 학기에 6번씩 총 12회의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행사

- MEXIM 2009 경험공유의 시간

미국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님을 초청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에서의 의사생활과 USMLE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강연회를 최소 1회 열고자 합니다.

- 2009 의학연구 경험 발표회

본과 4학년 재학생이 6주간의 의학연구 기간 동안 얻어온 새로운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는 자리를 8월경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미국 병원 혹은 다른 국가에 클러킵을 다녀온 학생이나 연구 및 해외 봉사활동, 기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온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게 있음을 알려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Elective Report 2009 발간

해외 클러킵 지원 방법 및 지원 가능한 장학금 소개, 해외 임상 경험 소개 및 팁 등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Annual Electives Report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미국 병원들의 지원기간이 6개월 전임을 감안할 때 2009년 10월에 발간하여 본과 3학년 이하 재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201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Biannual MEXIM Report 발간

정기모임에서 다룬 내용을 Report로 정리하여 동아리 활동을 알리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3. 프로젝트

- 재미 선배님 주소록 정리

서울대학교 선배님들의 연락처와 근무지, 진료과에 대한 정보를 주소록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미국으로 클러킵을 가서 선배님들을 뵙지 못하고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소록을 만들고 허락을 구한 다음에 해당 지역으로 가는 재학생에게 알려주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선배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 클러킵 지원 과정 프로토콜 개발

해외 클러킵 지원 과정을 프로토콜화 하여 학생들이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2009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MEXIM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아리 회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저희 후배들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께 드리는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Amazing July :

Columbia Univ. Neurology Elective를 다녀와서

양 현 식 (본과 4학년)

나는 어릴 적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나의 기억이 닿는 한 가장 먼 곳으로부터 지금까지, 10살 즈음 목사님이 되고 싶었던 잠시 동안을 제외한다면 나의 꿈은 줄곧 과학자였다. 언제부터 그러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진학하게 된 과학고등학교 시절, 초반에는 물리학을 좋아했었지만 시간이 지남수록 생물학, 특히 신경생물학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복잡하면서도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있는 미지의 세계임과 동시에, 또한 나의 할아버지를 앓아간 치매와 뇌졸중에 대한 해답을 줄 것만 같았던 것이다. 신경과학자, 이왕이면 사람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의예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의학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예과 1학년을 보내고 겨울방학, 미국에 교환교수를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 간 미국에서 방문했던 NIH는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엄청난 규모, 층마다 방 건너 포진하고 있는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당시 나에게 꿈을 불어넣어주던 한국인 과학자 선생님. 과학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기 시작한 때가 그 때였을까. 이 시간들 이후, 기초의학자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고, 본과 1학년이 끝나면서부터 방학마다 신경생리학 및 신경과 실험실을 방문하여 실험을 배우고 과학자의 삶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학교에서 배우는 임상 지식이 기초 연구의 설계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의학도로서 연구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임상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MEXIM을 만난 것은 이 때였다. 1년 선배들이 만든 모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선배들도 있고, 그 선배들의 생각에 관심이 있어서 접했던 이 모임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학생 시절 미국임상실습은 미국에서 수련의가 되려면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3학년 겨울부터 가능하다. 우리 학교와 교류 협정이 되어 있고, 게다가 내가 관심있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기초와 임상 모두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Columbia University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의 neurology에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학교간 교류협정의 방침상 신청이 허가되지 않았고, 이에 조금은 급하게 준비를 하여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MSKCC)의 Pediatric Neuro-oncology를 지원하여 가게 되었다.

당시의 MSKCC 지원은, 어찌 보면 4학년 여름에 가고자 했던 Columbia 전에 경험을 쌓고 연습하고자 하는 성격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곳의 교수님, Dr. Khakoo는 기대 이상의 것들을 보게 해주셨고, 외래 참관 위주의 실습이었지만 이것 저것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려서 pediatric neurology consult, clinical research 관련 설문 받기 등의 것들도 해 볼 수 있었다. 그에 더해, 미국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암 센터였던 MSKCC의 conference와 활발한 임상연구 등은 의학 지식의 생산지로서의 미국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시작과 도전

6월 마지막 주, 뉴욕에 도착하여 맨 하튼에 짐을 풀었다. 나에게 뉴욕은 낯선 곳 만은 아니었다. 도착한 다음 날, Hospital for Special Surgery에 계시는 김용정 선생님을 뵈 수 있었다. 뉴욕에 clerkship 실습을 위해 와있던 여러 동기들과 다른 몇몇 한인 의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꿈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간의 준비과정에서의 기대와 설렘이 살아나는 듯 했다. 오랜 기간 꿈을 품고 추구의 삶을 살아 가신 김용정 선생님을 뵈면서, 포기하지 않는 추구를 생각하게 되었다.

6월 30일,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에 방문하여 ID 카드를 발급받고 병원을 둘러보면서 다시 다짐을 되새겼다. 오래 된 것 같은 병원 건물 들에는 역사가 묻어나며, 새로 지어진 병원 건물에서는 역동적 발전이 느껴지는 듯 했다.

7월 1일, 실습 첫 날. 내가 하게 되는 neurology consultation service는 neurology 병동을 제외한, 응급실과 타과 병동 및 중환자실을 포함하는 병원의 전 영역에서 발생한 신경계 환자들에 대한 평가 및 추후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팀이다. 신경계 증상이 처음 발생한 환자에 대한 초기평가와 계획을 담당하며, 환자 돌보기 및 검사 예약 등의 다른 업무는 거의 하지 않기에 신경학적 접근법을 배우고 싶은 나 같은 학생에게는 최적의 rotation이었다. 이 때문에 Columbia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rotation이고 그렇기에 보통 때에는 외국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이번 7월은 특이하게도 자리가 생겨서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나는 환자가 보고 싶었다. 지난 겨울의 경험을 통해 직접 환자를 보며 부딪치며 배우는 것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길임을 알았고, 또 이들에게 나도 의학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또한 그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7월은 열정적으로 매사에 적극적이거나 했다. 때문에 Celine이 내게 clinic 환자 한 명 초진을 하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나는 마다하지 않았다. 그 날 clinic에 같이 있던 Columbia 학생은 3학년이고 실습 첫날 인지라 4학년인 내게 먼저 기회가 왔던 것이다.

건장한 흑인 남성. 평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하던 실습을 떠올리며 문진을 시작하였다. 자기는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는데, 언젠가 머리 속에 병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단 아는 대로 신체검진을 시행하여 tandem gait 이외의 다른 이상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Celine에게 간략히 보고하였다. Celine과 같이 가서 본 환자, 그녀는 시간을 짧게 들이면서도 조직적인 정보를 얻어내었다. 내가 알게 된 것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문진 기법과 신체검진을 더 능숙하게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에 마지막으로 clinic의 교수에게 환자를 직접 present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었던 것 같다.

실습 3일째, 나는 Emily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환자들을 같이 보면서

질문도 하고,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면서, 또한 신경학에 대한 열정을 공유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다. 그녀는 정말로 유능한 의사였고, 성격도 쾌활한데다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같이 다니는 것은 내게도 즐거움이었다. 시간이 늦어지자 그녀는 내게 집에 갈 것을 권유했지만, 나는 사실 더 있으며 지켜보고 싶었다. 같이 있는 시간만큼 배우는 것이 느껴지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을 말하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 급성 뇌졸중에 대한 critical pathway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다.

Neurology is "Exciting" !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나의 rotation은 아침 7시 45분까지 출근하여 전체 팀이 회진을 돌고 이후 주어지는 환자들을 본 뒤 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시경 퇴근하는 일정이었다. 내가 주로 한 일은 consult가 들어온 환자를 문진 및 검진한 뒤 여러 영상과 검사실 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초기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Consult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응급실인 관계로 응급실 환자 초진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내가 먼저 환자를 진료하고 clinical note를 작성하여 electronic medical record에 올리면, 레지던트가 나와 함께 가서 환자를 보고 내가 써 놓은 note에 대한 comment를 달아 medical record에 addendum을 달아주고, 내게도 직접 어떤 점이 더 보강되어야 하고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교수님과 같이 팀 회진을 돌 때 내가 환자를 presentation 하고 같이 환자를 본 뒤 다시 교수가 환자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하면서 내게도 feedback을 해주게 된다. 이렇듯, 환자를 직접 보고 선배 의사들로부터 2번의 feedback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숙련되지 않은 의학도인 내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울 수 있다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의료 환경적 여건상 그러한 교육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며 안타깝기도 했다. 입학 할 때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다른 교육을 받고 나면 실력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속상하기도 했다.

또, 이상과 같은 실습 이외에도 여러 교수님들과 레지던트들이 모여 어려운 case를 놓고 다 함께 진단명 맞추기를 하는 morning report, 맛있는 점심이 제공되는 resident didactic session 등에도 참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resident didactic session은 각 분야 전공 교수들이 레지던트들을 위해 강의를 해 주는 시간인데, 레지던트 근무 시작이 7월부터인 관계로 각 분야의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강의를 해주어서 학생인 내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던, 놓치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다.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 Columbia의 neurology consult service는 2주마다 교대를 하기에 나는 두 팀과 일할 수 있었고, 두 팀의 구성원이 다른 만큼 분위기도 조금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들 내가 신경과학을 좋아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함께 일하는 것이 진정 즐거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team은 교수 Dr. Goldberg와 4년차 Emily, 3년차 Celine, 2년차 Ilana, 그리고 내과에서 파견 온 두 명의 레지던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Dr. Goldberg는, 임상보다는 기초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신경과학자로, 눈의 움직임에 관한 인지과학적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Society for Neuroscience의 차기 회장 당선자였다. 그는 비록 기초연구에 주력하는 의사였지만, 그래도 consult team이 진단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할 때, 지치지 않는 호기심과 풍부한 임상적 지식, 특히 눈의 움직임이 변화하는 질환들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팀을 지지해 주었다. 이 분과 함께 하는 동안, 뇌신경검진에 대해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tip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분의 실험실에 방문하여 원숭이 실험을 진행하는 모습도 참관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chronic illness polyneuropathy가 의심되는 간이식 환자를 Dr. Goldberg와 함께 보았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내가 환자를 만나서 검진할 때는, 병력상 polyneuropathy가 의심되는 것 같았고, 감각 검진에서도 한 쪽 다리에 stocking pattern으로 감각 저하가 관찰되고 있었다. 다리의 근력은 그다지 이상한 것을 잘 모를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회진에서 이 결과를 Dr. Goldberg에게 직접 보고하였을 때, 그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보러 가자고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검진을 시작하자 감각 이상 영역은 예전에 환자가 zoster를 앓았던 L4-5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오히려 하지 근력 저하가 더 걱정할 만한 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변은 감각 신경계가 아닌, 운동신경계 쪽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었다. 나의 진단은 틀렸다.

이 증례를 통해 나는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은 정확하고 자세한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polyneuropathy를 의심했고, 감각 이상이 관찰되자 polyneuropathy의 전형적 증상인 stocking pattern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다. 즉, 나의 선부른 선입견이 환자의 진단을 망칠 수도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특히, 아직 배워가는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겸손하고 철저한 검진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2 주 동안 나의 선배가 되어 많은 것을 알려 준 Emily, Celine과의 만남도 내게는 즐거움이었다. 앞서 말했듯, Emily는 유능한 의사로, 4년차 중 우수한 두 명만 선발되는 chief resident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열정과 총명함은, 나 또한 4년차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기운을 뿜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Celine 또한 총명함을 뿜어내는 의사였는데, 그녀는 레지던트가 되기 전에 했던 기초연구를 통해 이미 교과서의 한 단원을 저술했다고 했으며, 여러 언어에 능통하고 환자들에게 정말 잘 대해주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2주의 시간이 끝나고 만나게 된 두 번째 팀에서는 Dr. Motiwala와 4년차 Mandip, 3년차 Mary, 그리고 야간 당직담당으로 한국계이면서 Emily처럼 chief resident를 하고 있는 4년차 최희만 선생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Dr. Motiwala는 기초 연구는 하지 않는 전임 임상의로, 탁월한 임상가였다. 특히 그는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종종 논문을 뽑아 와서 레지던트,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간단히 설명해주곤 했으며, preceptorship rotation을 통해 그를 따라다니는 Columbia 4학년 학생 1-2명도 회진에 데리고 오곤 했다.

두 번째 팀과 함께했던 기간 동안에는 consultation service로 의뢰되는 환자 수는 적었지만, 더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최희만 선생님과 함께 했던 며칠간의 야간 당직은 색다른 즐거움이었다. 최희만 선생님은 야간당직을 같이 하면서 많이 가르쳐주셨다며 함께 해 볼 것을 제안했고, 한참 신경과학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던

나는 이를 감사히 받아들였다. 아침 7시 45분까지 출근해서 밤 11시경 퇴근하는 생활이었지만, 나는 이를 통해 ALS 환자, vertigo 환자 및 급성 뇌출혈로 뇌사에 이르게 된 환자 등 다양한 환자들을 접하고 또 배워나갈 수 있었고, 하루는 신경과 chairman인 Dr. Pedley 등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morning report에서 밤에 보았던 case를 발표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최희만 선생님과 함께

또, 후반부 2주 동안에는 정신과와 신경과가 함께 하는 epilepsy conference에서 환자 증례 보고를 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Schizoaffective disorder로 내원하여 electroconvulsive therapy를 받으려 하는 환자가 간질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어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과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한 모임이었는데, 나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하던 Emily와 Mandip이 나에게 이 환자의 정보를 정리해서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나는 정신과 폐쇄병동에 방문하여 두꺼운 외부병원의 의무기록을 review하여 요약하고 환자를 본 뒤 발표를 하게 되었다. 발표 당일에는 교수들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나의 보고를 중간에 중단하고 정신과 교수가 직접 증례 보고를 하게 되었지만, 나는 이러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에 만족한다.

한편,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신경계 질환 중 하나인 multiple sclerosis는 한국에는 매우 드물지만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흔하다. 이에 환자들의 임상상을 살펴보고 싶어 실습 중 하루는 multiple sclerosis clinic에 방문하게 되었다. Resident didactic series에 강의하러 왔던 Dr. Tallman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그의 clinic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환자 진료를 참관하고 여러 질문들을 하며 평소 궁금했었던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상과 같은 7월 동안의 실습은 내게 드라마 ER에서 볼 수 있었던 역동적이고 치열한 진료 현장과, 드라마 House MD에서 볼 수 있었던 의학적 난제의 해결을 위한 짜릿한 지적 도전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2주간의 짧은 신경과 실습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실제적인 많은 면들을 느끼게 해주었다. 직접 문진을 하고 신경학적 검진을 통해 병을 진단해 나가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머리를 즐겁게 하였고, 신경학적 검진의 시행 방법 및 정상소견과 이상소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지식들을 교정할 수 있었으며, 환자 평가 과정에 필요한 지식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질문과 토론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능동적 배움이 있었으며, 회진이나 conference에서의 발표를 통해 환자 증례 보고의 요령도 조금씩 배워갔다.

또, 실습과정을 통해 만날 수 있었던 Columbia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 당시에는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견주어도 크게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실습 과정에서 만난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나 그렇지만, 아쉬움도 남았는데 rotation 기간

동안 공부도 조금 더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어느 morning report에서 case를 듣다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비교적 드문 질환이었던 그 환자의 진단명을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chairman 선생님이 관심있는 표정으로 그 질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신체검진 소견을 물었을 때에는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숙소로 돌아와 펴 본 나의 신경과 요약 노트에는 그것이 적혀 있어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다.

소중한 만남들

사람의 일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는지도 모른다. 내가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한 가지도 실제 의학지식을 생산해 내는 대가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또, 더 넓게는 모든 사람과 배우의 과정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이번 Columbia clerkship rotation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사람 구경' 이었다. 뉴욕에 와서만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을 알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 밖에 지난 겨울 MSKCC에서 내게 많은 기회 주고 많은 격려 해주셨던 Dr. Khakoo를 다시 뵈 수 있었고, 또, 지난 겨울에 처음 뵈고 이후로 뵈 때마다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김용정 선생님, 예과시절 여러 이야기 들려주며 어린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도와주었던 필라델피아의 김종오 선배 등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에 방문해서 얻었던 큰 수확이 아니었을까.

꿈을 향한 여정의 시작

이번 neurology consultation elective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다. 이번 rotation 기간 동안 나는 일이 많고 집에 늦게 들어가도 그저 즐거웠으며, 뉴욕 관광을 조금 못 하더라도 병원에 더 있고 싶었고 바쁜 응급실에서 정신이 없을 때에도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는 내가 신경과학을 즐겁게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전에는 내과와 신경과 중 어느 것을 할지 생각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Internal medicine is interesting, but neurology is exciting; I would rather choose more excitement!"

또, 미국과 한국에서의 진로에 대한 이전의 고민들에 관해서도 명확한 결론에 다가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미국에서의 배움과 생활이 한국에서의 그것보다 더 재미있었고 즐거웠기에, 굳이 연구를 위해 더 큰 무대에 뛰어 들고 싶은 마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의 수련 및 의사 생활을 더 진지하게 고려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짧은 시간 달려온 길은 어렸을 적부터 꿈 꿔 왔던 그 길이었고,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달려나가길 희망한다. 이제 의과대학 졸업을 앞두고 꿈을 향한 본격적인 모험과 여정에 첫발을 내디디려 하는 지금,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며 혼란스러움을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 선배들이 삶으로 보여주었던 진정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찾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다른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이며, 궁극적으로는 신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라 믿기에 나는 이번 연수 기간, "amazing July" 를 통해 꾸게 된 꿈을 계속 꾸고 싶다.

지난 18년간 해마다 가을이면 졸업 후 40년이 된 학년의 모임이 모교에서 있었다.

젊어서 국내외로 흩어졌던 옛날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늙어가는 서로의 모습을 보기도하고 밀렸던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의미를 갖는 모임이다. 모교의 정든 교정을 되돌아보고 학창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보고 발전해가는 병원, 학교모습을 되돌아 볼수 있는 의미 깊은 행사의 일정들이라 하겠다.

68년에 졸업한 우리 동기들은 군사혁명후 특별히 변화된 입시과정을 통하여 대부분 전국적인 국가고시(300점 만점)를 거쳐 그 성적에 따라 원서를 제출하고서 체력시험(50점 만점)을 치룬후 전국 3500명 중에 100명 내에 종합성적이 해당되면 합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고루고루 우리 학년에 들어왔다.

던지기, 달리기, 넓이뛰기, 철봉 턱걸이, (여학생은 팔굽혀펴기)를 하는 체능테스트를 합하여 체력까지도 튼튼해야 훌륭한 의사가 될수있다는 혁명정부에 의한 입시과정을 처음 거친 학년이다. 모든 대학교가 그 해에는 다 그랬지만 입학이 모두들 정원제여서 그 많던 보결생이 어느 사립대학이나 다 금지되었다. 우리 서울의대는 물론 보결생은 없었고 이 해에는 신입정원수마저 더 줄인 100명 이었다.

입학후 청량리 예과과정은 "남만을 즐기는 과정, 적당히 해도 된다" 라는 잘못 전달된 생각으로 강의의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여 여러 명의 학생이 한 두 과목(한문, 영어, 세계문화사 등)에 역률하게 낙방을 하여서 우수한 학생들이 유급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본과시절에는 강의실에서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단식투쟁을 벌인 일도 있었다. 우여곡절끝에 졸업한 직후에는 무장공비가 청와대 뒷산에까지 침투하여 소나무에다 총을 쏘던 김신조사건으로 시절이 아주 어수선 했다. 55퍼센트의 졸업생은 군복무로 입대를 했고 35명은 대학병원에 4명은 기초의학에 나머지 10여명은 한일병원, 적십자병원, 도미한 사람으로 흩어져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군의관이 되기를 준비하는 3개월간의 훈련도중에 5명의 공군, 4명의 해군을 제외한 나머지 육군에 입대한 육군군의학교에서는 47기로서 데모를 했다. 이 사건은 어찌 말하면 항명사건이요, 주말외출후 해이하여진 어둠을 무대모한 술취한 후보생들의 군대에서는 있을수 없는 투정같은 것이었다. 당시 군의학교 교장으로 계시던 서울의대선배 김종호 대령이 주말이면 외출을 허락하여 덜 고달프게 하려는 좋은 배려에서 나온 "민주주의식 군사훈련"에 의한 부작용이었다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 댓가로 그 후부터는 모든 군의관에게 유격훈련을 받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입관후 야전군에 도착한 즉시 서울의대 선배인 김병국 장군(당시 대령)의 지시로 군의관에게 새로운 힘은 유격훈련을 시켜서 전투능력까지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동기들은 한창이던 월남전쟁에 참여한 동기들도 많다. 다행히도 군 복무기간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

군복무를 마치고나니 도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들 1년씩 무의촌 복무를 정부가 요구하여 우리 학년은 보건소, 보건지소 근무를 하였다.

왕진가방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논길을 달리기도, 산등성이를 타고 봉우리를 가로 질러가다가 왕진가방과 같

이 바위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대부분의 야전군 군대근무시절처럼, 전기, 전화, 수도가 없었던 자갈이 뒤덮인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따라 산도통이를 돌아가는 무의촌, 연탄불에 주사기를 소독하여 환자들을 돌보던 진료소, 초가집이 웅기종기 모여있던 못살던 농촌, 이런 곳이 군 복무후 당시 대부분의 우리가 근무하던 무의촌이었다. 물론 7년 8년씩 군의관 복무를

봉사면에서 아프리카를 수 십년간 다녀오기도한 장순명은 더욱 두드러져 장기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재미동기중에서도 각자들의 의료인으로서의 훌륭한 업적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동기들이 대부분이다. 동부 서부 여러 주에서 교회를 세워 많은 이민동포들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기독교인들도 많고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과 레지던

우리들 학창시절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단체(건우회)를 지도하여 주시던 기용숙교수님이나 내성균의 출현으로 골치가 아프게된 결핵에 대하여 해박하시던 김경식 교수님이나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과 같오" 하면서 의료업의 철학적인 강의를 하시던 심상환 교수님을 이날 모교에서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늘 감사하던 한 학생의 느낌만은 아닐 것이다. 서울의대가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면 그로서 우리 졸업생들도 더욱 모교에 대한 감사와 긍지를 느끼게 할 것이다.

전립선 암의 치료에 대하여 1.5시간 CME를 하였지만 양국의 세무협정이 복잡하여 서울의대에 하는 기부금이나 경비를 얼마나 IRS에서 Credit을 받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환자를 한국으로부터 유치하거나 자기를 선전하는 비용으로 Claim 할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니 부분적인 경비를 미국에서는 회계사들과 각자 상의하여 해결하기 바란다.

본인은 우연히 이번 기회에 무의촌 시절에 근무하던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놀랐다.

아스팔트가 잘 깔려져 있고 강릉가는 영동고속도로가 적금리를 지나가는데, 그 옛날엔 전기도 없던 곳에 이젠 텔레비 안테나에 신호등에 눈부신 발전을 했다. 물론 무의촌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군사독재에서 민주화로 발전되었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지난 40년간에 넉넉하여 저서 사람들이 자가용 자동차로 달리니 15분이면 몸이 아파도 큰 병원으로 갈수 있다. 골프장이며 식당이며 근처의 문화시설의 발전은 물론,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에 육박하니 모든 것이 변하여 그 강촌, 어름을 깨고 차디찬 개울가에서 갓난아이의 기저기를 빨던 그 마을, 많은 사람이 굶주리던 그 무의촌이 이젠 없어졌다.

이 사회에는 우리같은 의사들의 봉사활동도 중요한 한 몫이지만 훌륭한 정치(가능하면 민주주의로)가, 훌륭한 기업가가 함께 힘을 합쳐야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40년만에 방문한 무의촌은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종교적인 갈등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훌륭한 정치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모두들 평화스럽게 잘 살수 있게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금년에 졸업하여 동창회 신입회원이 된 의대후배들이 그들의 40주년인 2049년에 모교에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 한번 상상해 본다.

모교와 모교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40주년 졸업기념행사의 의미

서 윤 석(68, 오하이오)

하던 10년 선배님들이나 6.25사변시 졸업해서 학년의 절반가까운 동급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선배님들에 비하면 감사해야될 일일 것이다

40년 만에 옛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다.

101명중 미국에서 22명 부부 한국에서 25명 부부가 참가하였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던 두 명의 미국동기(우리 동기중에서 제일 잘생긴 정형외과를 뉴욕에서 시작하던 헬리스트 이규현, 몬티셀로 뉴욕에 잠들어 있는 그렇게 골프를 즐기던 외과의사 김경택), 한국에서 (삼성병원 외과의 개척자 교수 김용일, 양진목, 한두호) 이렇게 다섯 분을 제외한다면 생존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숫자가 부인과 남편을 모시고 참가하였으니 110명이 넘게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다. 네 분의 우리의 여자동기중에서 강조자, 신애라 두 분이 참석하여서 모임을 더욱 빛나게 했다. 이 두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여성의료계의 지도자들이 되어있었다.

지난 40년동안에 세상은 많이도 달라졌다. 민생고에 시달리던 국민들과 빈곤에 헤메는 나라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박정희 군사정권시절에 우리는 입학하여 우여곡절끝에 6년후 졸업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설치하여 우리나라를 일일 생활권으로 하려던 시절이다. 그 후의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은 물론 위성시설, 컴퓨터에 의한 정보전신의 발달로 전세계가 동시생활권으로 변했다. 뉴욕에서 한사람, 중국 상해에서 한 사람, 서울에서 한 사람 모두 컴퓨터를 켜고 작은 핸드폰을 들고 동시에 Conference Call을 할수있게 되었다. 미국, 유럽에서 일어나는 주식변화는 서울의 주시가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 환자들은 값 좋고 기술 좋은 의료진을 찾아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한다.

엑스레이 한 장으로 진단하던 것을 CT Scan, MRI, 초음파검사, 돛보기안경을 쓰고 하던 뇌수술, 눈수술, 귀수술을 이제는 TV 스크린을 보면서, 컴퓨터 이미지를 보고 현미경하에 수술을 하고, 모든 환자기록을 컴퓨터로 즉시 전송하고 기록한다.

로보트로 힘든 부위를 수술하고 Arthroscopy, Fiberoptic scopy, 레이저빔으로, 모든 분야의 외과적 수술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예방, 세포생물학, 유전자치료, 내과적인 발달은 물론 말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도 우리 동기들은 지난 40년간 많은 일들을 하였다.

대학병원장, 학장, 선거로 당선된 국립대학총장, 대기업의 총수, 편집인, 대학교수이자 학문적으로 훌륭한 논문을 내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로서나 국내외 의학계에 기여한 동기들이 어느 학년보다 훨씬 많다. 특히 의료

트를 훌륭히 지도하는 동기들도 많다. 또한 본인이 근래에야 알게된 바로는 남이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아픈 사람 가난한 환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고있는 지역에서 또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봉사하는 동기들도 여기저기 많다. 그들의 노력에 동기의 한 사람으로 머리를 숙이게 한다.

40년 이면 긴 세월이라지만 우리에게 잠깐사이에 흘러간 느낌이다. 그러나 막상 만나보니 건강한 모습이지만 환갑을 지난지가 모두들 4, 5년은 되었다. 더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나 배우자들의 건강상 이유로 이렇게 쉽게 모이기도 힘들다고 한다.

금년과 작년 우리 동기들은 직장에서 은퇴하는 사람이 늘고 앞으로 은퇴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계기도 되는 시점이다. 국내에서는 그런대로 다른 일자를 구하여 건강이 허락하는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보통인것 같고, 재미동기들은 그와는 달리 은퇴하여 좀 더 색다를 평소에 우리가 개입하느라고 하지 못하던 취미생활이나, 봉사, 여행, 특기생활을 찾아서 살려고들 한다.

모임을 기념하는 남해안 여행을 통하여 국내외 동기들은 짧은 날로 되돌아가서 밀렸던 우정을 나누었고 서로의 건강을 다짐하고 자주 만날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남은 미래에 대하여서도 서로를 격려하였다. "건강하시요. 아직도 담배를 피운다는 말이요? 건강히 살다가 또 자주 만납시다. 2009년 가을에 미국 버팔로에서 신규호 박사가 주관하는 골프모임에 많이들 오시요, 나이가가라 폭포, 카지노, 박물관 방문도 있으니... 서울에 나오면 새로 옮긴 압구정동 한일관에서 매달 모이는 삼목회 모임에 꼭 들르시요..."

미국에서 참석을 못하였지만 기부금을 낸 배려깊은 동기들(김영남 교수, 김진홍 교수, 신용계 교수)의 애교심은 두드러졌고, 이번 행사에만 우리 동기들의 학교와 동창회에 낸 기부금은 의대역사상 가장 많은 4000여 만원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느라고 수고들 하시던 교수님들은 모두들 떠나고 안 계시지만 앞으로의 모교의 발전,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의미있는 기부금이 될 것이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필요하고 학생들이 잘 지도를 받으려면 교수진들이 연구할수있는 여건을 잘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실력이 있는 교수가 되면 훌륭한 서울의대졸업생을 길러낼 수 있다.

발전기금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동창회에도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 이런 모금을 할수 있어서 모든 동기들에게 감사한다.

그 때

노승국(70, 텍사스)

서산에 지는 해가
이제 서럽지 않아
그 눈물진 찬란의 빛
내 마음 이려니

정깊은 달은
님의 눈 속에 빛나고
별처럼 꿈많은 밤
나 그대에 바치니라

紙上法醫

알콜중독자의 넘어짐



노용면(55, 대뉴욕)

던힐 여사(Mrs. Dunhill)는 자기 집 이층 계단에서 넘어져 아래층에 굴러 떨어졌는데, 그런 후 그녀의 건강이 급작스럽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만성 알콜중독자여서 집에서 넘어지는 일이 가끔 있었지만, 이번에는 구역질을 하고 토하더니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며칠 수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활달도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한지 몇 시간만에 사망했다. 법의 관실에서 시체를 부검하고 그녀의 사인을 간경변증으로 인한 간기능 부전 및 광범위한 신체 좌상 (cirrhosis of liver with hepatic failure; diffuse contusions of body) 이라고 했고 그것을 자연사 및 사고사라고 분류했다.

그런 후 한 달쯤 되어, 그녀의 딸이 집을 청소하다가 어머니가 들어있던 보험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던힐 여사가 그전에 일하던 직장을 통해서 마련했던 보험이었는데, 그녀가 사고사로 죽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게끔 되어 있었다. 딸이 근처에 있는 보험회사 지점을 찾아가 보험료 지불을 요청했다. 자기 어머니가 층계다리에서 넘어진 후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으므로 그것이 사고사라고 생각한다는 설명을 했다. 그런 후 보험회사에서 통지를 보내왔는데, 자기네는 그 요청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녀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니며 자연사라고 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회사에서 자문위원들을 통해 던힐 여사의 병원기록과 부검감정서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던힐 여사가 넘어져서 생겼다고 하는 상처라곤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출혈은 보였지만 늑골골절이 없었고 폐손상도 없었습니다. 척추신경에도 출혈이 없었습니다. 가슴에서 본 출혈은 응급치료 도중에 생긴 것들입니다. 따라서 던힐 여사의 죽음은 회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확실합니다.

보험회사 지점이 내 도움을 청해 왔다. 내가 던힐 여사의 과거병원기록들과 부검기록을 직접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58세인 던힐 여사는 오랫동안 뉴욕시의 도서관에서 일해 왔었는데, 약 10년 전에 남편을 갑자기 잃은 후부터는 술만 마시면서 살아왔다. 남편 곁에 가는 날을 매일 같이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결국 알콜중독자가 되어 버렸다. 그녀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자기 집 층계다리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병원에 실려 갔을 때는 이미 쇼크 상태에 있었다. 그녀는 입원 후 몇 시간만에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가 쇼크의 원인으로 출혈이 아니면 감염이라고 추정했다.

부검 기록을 보니, 감염의 증거는 전혀 없었다. 가슴 앞쪽과 왼쪽 어깨 그리고 양쪽 하지 앞에 좌상(contusion)이 넓게 있었다. 법의관이 이들 좌상의 넓이와 깊이를 자세히 기록했었다. 좌상들은 짙은 청갈색이었고, 누런 빛이 없었다. 따라서 오래된 좌상은 아니었다. 내부 장기들의 소견을 보니, 출혈이 연부조직 특히 근육속에 까지 깊이 펼쳐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혈이 종격동(mediastinum)과 심낭주변에 까지 진전되어 있었다. 대뇌 우측에 얇은 경뇌막하 출혈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 환자가 쇼크에 빠진 원인은 출혈이었다. 연부조직속에 있는 심한 출혈이 바로 그 원인이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러한 연부조직 손상을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를 자주 보

게 된다. 알콜중독자가 쇼크의 영향을 견디기 어려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던힐 여사의 지병인 간경변증이 그녀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 보았다. 현미경검사 결과를 보니, 그녀의 신장조직(kindney tissue)에 담즙침적(bile casts)이 없었다. 따라서 간기능이 매우 나쁜 것 같지는 않았다. 사망하기 며칠 전에 층계다리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외상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다른 병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병자라고 해서 그 병만으로도 사망하지는 않는다. 병자도 사고사나 심지어는 타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병든 사람이 죽기 직전에 외상을 입었다면 외상이 사인 분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나는 던힐 여사의 직접 사망원인은 넘어져서 생긴 심한 연부조직 손상이고 사인분류는 사고사라고 하는 결론을 지었다.

던힐 여사의 가족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 보고서를 보험회사에 보냈는데, 다시금 보험료 청구를 거부 당했다. 그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내왔다.

던힐 여사는 사망하기 전에 오랫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집에서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닥타 로(Dr. Rho)가 말하는 외상들이 반드시 넘어져서 생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병원기록에 의하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가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몸에서 본 멍들이 응급의료행위로 생겼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또한 닥타 로가 그녀의 쇼크가 멍으로 생긴 연부조직의 출혈 때문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녀의 간 기능부전에 의한 문정맥 고혈압(portal hypertension) 때문에 생긴 위장출혈의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전에 결정한대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닥타 로의 대답을 제시해 보십시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1. 보험회사가 던힐 여사의 앞가슴, 양쪽 어깨, 그리고 양쪽 하지에 있는 좌상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생겼고 넘어져서 생긴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1) 던힐 여사의 딸에 의하면, 상기한 외상들이 그녀가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부터 있었다.

(2)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의 간호사의 기록에도 이런 외상들이 기록되어 있다.

(3) 담당 의사가 작성한 입원기록에도 이런 외상들이 기록되어 있다.

(4)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도 이러한 외상들을 자세히 기록했다. 법의관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흔적들을 외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2. 보험회사가 그녀에게서 본 쇼크의 원인이 간경변증에 의한 위장출혈이라고 했는데, 이에대한 나의 대답은: 부검기록에 의하면 위장속에 출혈이 전혀 없었다.

보험회사가 결국 내 의견을 받아드리고 가족에게 보험료를 지불했다.

Reference: Yong-Myun Rho: Industrial Diseases and Injuries. Medicolegal Implication.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78 : 2239, 1978.

난시 화가 모딜리아니

정유석 (64, 남가주)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Amedeo Modigliani, 1884-1920)는 이탈리아 출신 화가인데 1906년 파리로 이주하여 작품 활동을 했다. 그는 당시 주위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 주로 유화와 조각에 몰두했는데 그의 작품에는 다른 화가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독창적인 데가 있다. 그의 미술품이 독특하게 된 것은 난시(亂視, Astigmatism)로 인한 영향도 있다.

난시는 시력장애의 하나로 각막의 표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안구 속 렌즈에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발생한다. 초점을 맞추기 힘들며 특히 원시(遠視)의 시력이 약하다. 이들은 대상을 정상보다 상하로 길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또 다른 난시 화가 엘 그레코와 마찬가지로 모딜리아니가 그린 인물은 정상인보다 훨씬 길게 묘사되어 있다.

모딜리아니는 유대인으로 이탈리아 터스카니 지방 리보르노에서 태어났다. 이 도시는 유서 깊은 이탈리아의 수많은 도시들과는 달리 종교적 핍박을 피해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세운 상업 도시였다. 아버지는 원래 환전상이었는데 파산할 지경이 되어 가족은 심한 궁핍 속에서 살았다. 사실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아메데오는 집안의 파멸을 면케 해 주었다. 당시 그 지역

에 오래 전부터 내려온 관습법에 의하면 신생아를 가진 산모가 누운 침대 위에 있는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있었다. 집달리들이 집안을 들이닥쳤을 때 아메데오의 어머니는 마침 그를 낳고 있던 중이었다. 가족들은 값나가는 물건을 모두 산모 배 위에 올려놓아 차압을 면했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병약해서 11세에 녹막염, 14세에 장질부사, 16세에는 녹막염이 폐결핵으로 발전하여 빈사 상태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흥미를 가진 모딜리아니는 어머니에게 이탈리아 여행을 즐겼는데 막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라 어머니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남부의 나폴리, 카프리, 로마, 그리고 북으로 플로렌스와 베니스로 그를 데리고 구경시켰다.

14세에 장질부사에 걸렸을 때 그는 혼수상태에서 플로렌스 성당에 있는 그림들을 보고 싶다고 말 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플로렌스에서 수많은 르네상스 화가들의 그림을 보게 했을 뿐 아니라 고향에 돌아와 구굴리엘모 미켈리안 화가 밑에서 미술 공부를 시켰다. 2년 후 로마에 가서 기존 부르주아 계급의 관전 화파들에 반기를 든 마키오아이올리 파(Macchia란 물감이란 뜻에서 유래했는데 경멸하는 표현으로는 얼룩이란 의미가 있다) 화가

들과 뜻을 같이 했다. 당시 프랑스의 인상파만큼 주목을 끌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일맥상통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강이 약해서인지 그는 야외로 나가 풍경을 그리기를 싫어했다.

그는 카페에서 스케치하거나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는 편을 택했다. 그는 초상화나 정물, 그리고 나체화를 선호했다. 후에 친구들은 모딜리아니가 나체화에 뛰어났다고 회상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청소년기에 갖는 여체에 대한 호기심 정도가 아니었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는 하녀들을 꼬였고 창녀촌을 돌았다. 20대에 들어가면서 그는 술과 해쉬시(강한 대마초)에 손을 대었고 무절제한 생활에 빠져들었다.

모딜리아니의 파리 생활

1906년 모딜리아니는 예술의 도시 파리로 갔다. 당시 모든 전위 예술의 중심지였다. 그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몽마르트르에 정착했다. 그곳은 가난이 넘쳐흘렀으나 모딜리아니는 몰락한 부자가 아직도 품위를 유지하는 듯한 생활을 했다. 보헤미안 같이 처신했지만 갈색 코르덴바지를 입었어도 자주색 스카프를 목에 둘렀으며 검은 테 모자를 썼다. 게다가 그는 미남이었다. 그러나 파리 생활 1년 만에 그의 행동거지에 큰 변화가 왔다. 단정한 신사 화가에서 거지 왕자 같은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그의 처소는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았다. 르네상스 그림 복사본에 벽에서 떨어졌으며 우아한 커튼은 찢어졌다. 그는 이미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

가 되었다. 그는 작업실에서 부르주아 취향을 모두 제거한 것은 물론 초기 작품들을 거의 다 부서버렸다. "내가 더러운 부르주아였을 때 만든 유치한 장난감들" 이라면서. 이런 파괴적인 행동은 자신이 결핵으로 인해 결국 일찍 죽을 것을 예감한 때문인 것 같다. 또 아직도 무명작가여서 불만이 높았는지 그는 당시 파리에서 손꼽는 술꾼 화가 윌트릴로나 수틴과 술을 마시며 동료들로부터나마 인정을 받고 싶어했었다.

당시 앙드레 살몽이란 평론가는 모딜리아니의 마약 사용과 압상트 마시는 것을 미화해서 마약과 보헤미안 식인 화가의 생활로 그의 천재성을 설명했다. "모딜리아니는 평소에는 그저 평범한 화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방탕한 생활에 빠지고 나면 기대하지 않은 광채가 그에게 비취 그의 예술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그는 생동하는 예술의 대가가 된다." 이런 식의 평가는 틀린 것이고 모딜리아니를 후세에 오해받기 쉽게 만들었지만 하여간 그는 파리 생활에서 방탕과 방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

그는 파리 시절 무서운 기세로 그림을 그렸다. 하루에도 수 백 점씩이나 되는 스케치를 그렸다. 그러나 남은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작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파괴했거나 하도 자주 거처를 옮겨서 옛날 집에 남겨두기도 했고 많은 여자들에게 그냥 주었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그녀들이 잃어버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모딜리아니는 초상화나 <다음면에 계속> 나체화의 모델로 삼은 여자들은 대부분

IMF의 여파로 더욱 활성화된 시장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소위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즉 "너네들 먹을 것은 네들이 알아서 벌어서 먹어라"인데 이로 인하여 예전에 국고의 보조를 받아오던 '국립병원'이 하루 아침에 '사립병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옛날에도 고명하신 교수들의 특진제도가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수고 레지던트고 간에 일차적으로 돈을 벌어야 살아 남을수가 있다.

여자가 몸을 팔면 매춘, 문사가 글을 팔면 매文, 유명인사가 이름을 팔면 매名이라고 하는데, 의사가 서울대학이라는 간판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을 매醫라고 해야 하는지 또는 매術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무튼 대부분의 의사들이 개업을 하는 이유는 돈 좀 벌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이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 서울의대 분당병원, 보라매 병원 등등인데 이는 요즈음 같은 아수라 판에서 다른 사립의과대학들과 경쟁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원래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서울대학답게 행여나 다른 사립의과대학에 뒤질세라 서울의대 대학병원 LA 지소가 2008년 11월에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까지 주는 상대한 개소식을 갖고 출범하게 되었다.

주목적은 재미교포들을 상대로 환자들을 한국의 서울의대 산하 병원에 유치해서 현금장사를 해보자는 것이다. 많은 교포들이 보험이 없고 또 있더라도 coverage가 신통치 않은데다가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미국 의료제도의 맹점을 노린 것으로 한술 더 떠서 고국관광도 겸해서라니 금삼첨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눈부신 발전으로 IT 강국이 된 한국이 컴퓨터를 동원하는 첨단 의료산업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각종 검사나 수술 기술은 미국을 뺄칠 정도가 됐다고 한다. 특히 한국인에게 많은 위암의 진단이나 수술, 또는 봄을 일으키고 있는 성형수술 등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나은 뿐더러 가격도 싼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같은 서울대학병원이 할수있다는 역량이 아니라 이와같은 일을 대학병원이 해도 되느냐는

담위성에 있다고 본다.

한국사람들은 특히 일류를 좋아하고 명품에는 사족을 못쓰기 때문에, 요번에 LA 지소를 내면서도 짝새게 하버드 대학과 사문의 팔촌 정도의 파트너십을 맺어왔다.

우리의 모교 서울대학 병원이 일취월장하는 모습은 환영해야 할 일이나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학병원의 일차적 임무

는 의과대학생, 인턴, 레지던트, 헬로우 등의 교육 내지는 수련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의 유수한 의과대학 특히 공립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는 거의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립/정부병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 수련의들이 맘 놓고 실습(?)을 할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자기 돈 써가면서 의료관광을 가는 VIP들은 너도나도 명의만을 찾을 것은 뻔하다.

그렇다면 서울대학 나온 수련의들이 일류 병원에 일류 환자만 시술하는 일류 교수들에게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과연 일류 의사가 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일류 의대생들을 일류 장사꾼으로 만드는 첩경일 것이다.

서울의 대학병원은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이다. 모든 환자가 백을 써야 입원을 할 수 있고 의사 면담 3분 하느라고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어떤 교수는 하루에 외래 환자 100명을 보아야 체면유지를 할 수 있다.

진료실 풍경을 보면 방 밖에서 2~30명이 복도에 장사진을 치고 있고 방 안에는 환자 3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마치 conveyer belt가 돌아가는 것 같이 일사천리로 밀려가고 있었다.

환자가 방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차트를 편 간호원이 몸무게, 혈압, 체온을 적어서 의사한테 주면 의사는 미리 부착된 검사소견을 일별한 후 환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난번에 이어 요번 검사는 이러저러 하고 신체검사상 별 이상이 없으니 요번에는 2번 약 말고 3번 약으로 바꾼후 다음주에 또 오세요"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레지던트가 차트를 받아 요점을 적고 미리 컴

퓨터로 찍혀 나온 처방 하나 달아 주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빠르면 2분 걸어야 5분인데 그야말로 사창가에 가서 오입 한번 하는 시간보다 더 짧다.

어떤 분이 친척 조카놈이 대학병원에서 명의로 날리고 있다기에 찾아갔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노발대발 했으니 "아저씨 다음에는 점심시간 전 마지막 환자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진료후에 식사대접

하면서 자세히 말씀 드릴게요" 했었다. 나 라도 환자가 20명 썩이나 몰려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살아 오셨다고 해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겠는가. 즉 의사들도 죽을 맛인 것이다.

그러면 잘나가던 대한미국 의사들의 신세가 왜 실제로는 길거리의 참녀보다도 못한 요 모양 요 꼴이 됐단 말인가.

나는 그 기원이 제3공화국 시절 엘리프 집단이 모여 있던 경제기획원으로 올라간다고 본다. 이때 대부분이 우리 서울대학 출신인 경제관료들의 눈으로 볼때는 의사란 놈들은 별로 잘난것도 없으면서 썩 돈을 잘 벌고 있는것 같아 뺨이 풀린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다는 미명아래 의과대학 숫자를 왕창 늘리고 보험에서 나오는 의료수가는 대폭 줄이게 된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내과의사가 환자 한 명 보고 벌 수 있는 돈이 커피 한잔 값이었는데 요즈음은 커피 한 잔 마시려면 환자 두 명을 보아야 하니 목표를 크게 초과달성한 셈이다.

그다음에 이 머리 좋은 경제관료놈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공립병원 독립채산제'이고 요번에는 '보건산업진흥원'이란 것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Medical Hub'로 끌어올리겠다는 누구라도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립대학병원은 물론이고 국립암센터까지 해외시장에 투입하더니 급기야는 아직 name value가 남아있는 서울대학병원까지 손님 받아오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얼굴개나 반반한 서울의대 출신 마담이나 기생들이 취업전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어떤 대학병원 의사들은 돈 한푼 안주는 주제에 국립은 무슨 빌어먹을 국립, 어떤 환자들은 돈만 아는 주제에 대학은 무슨 얼어죽을 대학이냐고 이름을 '국립서울대학병원'에서 '사립서울상업병원'으로 고쳐야 한다고 한다.

어떤 동문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다 빼고 그냥 '서울병원'으로 부르면 안 될까 했으나, 어떤 시민들은 "그동안 혈세로 키워놔더니 서방질이 웬말이냐, 엠병할! 아예 "매춘병원"이라고 하란다.

내가 서울대학을 나와서 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때 '서울대학 폐지론'이 기승을 부린 것도 서울대학 출신들이 국민들이 키워준 것을 망각하고 제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기고만장한데다가 또한 일부 서울대학 못나온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그랬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이렇게 한국의 소위 일류대학병원이라는 데서 미국에 있는 돈푼개나 있는 '고급 환자'들을 싹쓸이 해갈때, 그러면 주로 동포들을 상대로 하는 미국에 있는 한국의사들은 어찌란 말인가. 물론 전공과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암전문의, 소규모의 진단방사선과, 심장외과, 성형외과 등은 아마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LA에는 약 50만명의 한국인이 있는데 이중에서 최소한 2% 즉 만명이 정신과 의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는 많아야 300명 정도이니, 통계적으로는 30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겠으나 실제로 개업을 하는 정신과 의사는 5명도 채 안된다. 그러므로 8,000명이 넘는 정신과 의사가 꼭 필요한 대한민국 재외동포들이 허공에 떠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나 병원에 구걸을 하고 다닌다.

나는 한국의 '보건산업진흥원'이나 우수한 대학병원들이 진심으로 국민과 해외동포들의 보건복지를 위한다면 LA에 뼈까번쩍한 사무소나 분원을 차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재미한인 '정신상담소'나 '정신병원 분원' 또는 '치매병원' 등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 '국립'이니 '사립'이니 하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할 말이 없고 우리 국립서울대학병원이 매춘병원이 되더라도 아무쪼록 한방에 끝내주는 '일류'매춘병원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매춘 병원

이 원 택(71, 남가주)

〈전면에서 계속〉 나체화의 모델로 삼은 여자들은 대부분이 참녀들이었다. 그는 그녀들과 무절제한 관계를 계속했다. 당시 그의 모델이 되었던 그녀들은 이제 가고 없건만 화가의 손에 의해 무척 육감적인 나신은 우리들 앞에서 풍만한 아름다움을 아직도 과시하고 있다. 그렇다 해서 그가 사귀어온 여자들이 참녀들만은 아니다.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았다. 1910년 26세에 당시 21세인 러시아 시인 안나 아크마토히를 사랑했다. 안나는 당시 신혼이었는데도 미남 화가에 빠져 있다가 일년 후 남편에게 돌아갔다. 그 후 그들은 다시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

또 영국인 화가 베아트리스 헤이스팅스와 거의 2년 간 사귀었다. 그녀는 "복잡한 성격, 돼지와 진주. 1914년 치즈가게에서 만났다. 나는 그의 상대방에 앉았다. 해쉬시와 브랜드. 전혀 인상적이지 않다. 누구인지 몰랐다. 그는 못생겼고 야만적이며 탐욕적이었다. 카페 로통드에서 다시 만났다. 그는 수염을 깎아 말쑥했고 매력적이었다. 우아하게 모자를 치켜 인사를 한 뒤 상기된 얼굴로 자기 화실에 와서 작품을 보라고 청했다. 나는 따라갔다. 그는 주머니에 항상 책을 갖고 다녔

다. 첫 번 본 유화는 키슬링의 초상. 그는 피카소, 막스 자코브 말고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았다. 폭도를 싫어했다. 해쉬시 영향으로 좋은 작품을 완성시키는 법이 없었다."라고 표현했다.

모딜리아니의 마지막 여인

많은 염문을 뿌리고 무수한 참녀 출신 모델과 정을 통했던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가 진 에뷔테른이란 19세의 미술학도를 만난 것은 1919년 여름이었다. 당시 화가지망생이었던 그녀는 많은 가난한 화가들과 교류했는데 그 무렵 파리 화단에서 알아주던 일본인 화가 후지타의 모델 역할을 했다. 모딜리아니는 그 때 33살이었는데 평소 에뷔테른은 그의 그림을 좋아해서 그들은 곧 사랑에 빠졌고 동거에 들어갔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진지하고 지적인 여성으로 '강한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 짙은 갈색의 긴 머리가 흰 얼굴과 대조되어 '코코넛'이란 별명을 가졌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그들의 결합을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했다. 그녀는 파리에서 태어나 모딜리아니와 동거하기까지 부모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공인회계사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

였다. 그녀에 비해 모딜리아니는 유태계통에다가 방탕한 난봉꾼으로 파리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랑드 쇼미에르 거리에 있는 아파트 3층에 스튜디오를 차리고 동거하면서 서로 모델이 되어주면서 그림을 그렸다. 모딜리아니가 진을 모델로 그린 초상화는 25점 정도 남아있다. 그러나 다른 모델과는 달리 모딜리아니가 그녀를 그린 그림에는 나체화가 한 점도 없다. 원래 모딜리아니는 술에 취하면 옷을 벗는 노출증 증세가 있었는데 그녀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 그런 악습이 사라졌다.

그 해 12월 모딜리아니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그가 전시한 그림들 중 나체화가 관객의 관심을 크게 끌어서 소문이 입을 타고 빠르게 퍼지자 파리 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취해 전시회는 몇 시간 안에 폐쇄되었다.

다음 해 그들은 따뜻한 기후를 찾아 프랑스 남부에 있는 니스로 옮겼고 그 해 말에 딸이 태어나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 진이라고 불렀다. 니스에 있으면서 모딜리아니는 레오폴드 드 보로브스키, 후지타 같은 화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 돈 많은 관광객들에게 팔았다. 그러나 그림 값이 싸서 수

입은 기근이나 면할 정도였다.

1919년 여름 그들은 파리로 돌아왔는데 그의 주벽은 절제 불능 상태로 발전하여 술을 마신 후 수없이 정신을 잃었다. 1920년 5월 어느 날 며칠동안 그들의 방에서 소리가 없어 집주인이 방에 들어가 보니 모딜리아니는 9개월 째 임신한 진 에뷔테른에 손을 잡고 섬망 상태에 빠져 온 몸을 사시처럼 떨면서 계속되는 환상, 환각에 빠져 있었다. 의사를 불렀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모딜리아니는 '결핵성 뇌막염'이 악화되어 목숨을 잃었다. 장례식 후 진의 부모는 그녀를 자기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가 너무 흥분해 있었고 무슨 돌출 행위를 할지 두려워 부모는 염려해 5층 방에서 머물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모딜리아니가 사랑한지 이틀만에 창문을 열고 투신해서 임신 말기에 있던 태아와 함께 사망했다.

부모는 그녀가 모딜리아니 곁에 묻힐 것을 거부했다. 5년이나 지나 진의 오빠가 부모를 설득해서 그녀의 관은 모딜리아니 묘지로 이장되었다. 그녀의 묘비명에는 "마침내 그들은 같이 잠들다." 그리고 "한없는 희생으로 봉사한 동반자"라고 적혔다.

터키와 희랍 여행을 마치고

박 해 영(김갑균 54, 세인 토마스)

5월 13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에 있는 샤프 여행사에서 주최한 30명의 재미동포들과 함께 이스탄불을 향해 떠났다. 우리는 여러번 단체여행을 했었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여행사를 통한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5월 14일: 첫날 관광은 이스탄불 시내구경이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은 90%가 이슬람 교인인 만큼 이채로운 성당도 많고 궁정도 많았다. '소피아성'과 '폼가프' 궁정의 보석관은 화려하기 짝이 없고 얼마전 올림픽이 열렸던 '히도르룸'광장은 웅장했다. Red Palace, Blue Palace 등으로 이름난 궁정은 내부에 장식한 보석과 수정 그리고 tapestry와 rug 등의 색깔에서 유래한 이름인게 이색적이었다.

5월 15일: grand bazaar라는 큰 시장이었는데 옛날 실크로드의 마지막 행선지로 유명한 대규모의 만물상이 모여든 시장이다. 모든 물건이 백화점이나 시내 상점보다 싸다해서 인기가 대단한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 북적거리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사지 못했다. 몇 천년 전에 지은 지하 저수지를 잘 보관하여 지금도 그 물을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신기한 유적도 구경했다.

5월 17일: 사후후 사리아, 아다나, 아타키야를 거쳐서 Tarsus에 도착했다. 사도 바울이 물을 길어 마시던 우물, 즉 St. Paul's Well이 잘 보관되어 있어 아직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실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이 정말 그때의 우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곳은 사도바울이 높은 산속에 굴을 파고 그 동굴 속에 숨어 살며 예배를 보았다는 지하교회였다. Cleopatra가 살다 갔다는 집의 대문 Celopatra Gate가 아직 남아 있었다.

5월 18일: Cappadocia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지상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할수 없는 신비스러운 경치가 끝없이 펼쳐진 곳이다. 몇 천년 전부터 긴 세월이 걸쳐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지면서 강한 바위는 남아있고 약한 부분은 쓸려 내려가는 기후 변화를 연거푸 겪으면서 이루어진 기묘한 광경이다. 자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한번 느껴본다. 이 지구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마치 다른 위성에 온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버섯 바위' 넓은 바위산, 뾰족하게 솟아난 높은 바위산, 비둘기 꼴짜기 등이 있다. 그 높은 바위 속에 굴을 파고 지어진 지하성당이 30개나 된다. 옛날에 기독교 학대에 못이겨 이곳에 와서 바위 속에 굴을 뚫고 지은 교회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올렸더니 종교의 힘의 위대함에 다시한번 놀랐다. 이제 우리는 아무곳에서나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게 감사할 뿐이다. 그 시대의 지하성당에서 30명 정도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있다. 음식물을 감춰두었던 지하창고는 입구는 보이지 않게 해놓고 들어가면 넓으며 이곳 저곳에 일광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뚫려져 있어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감탄할 수 밖에 없다. 요즘은 큰 바위속에 현대적 식당이 생겨 수십 명씩 단체 손님을 대접하게 되어있다. 우리가 한국사람들인줄



알고 '아리랑'을 연주하며 노래를 해줬다. 현재는 이곳 저곳 굴속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한다. 터키인들은 친절하고 친절감을 주며 특히 한국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것은 요즘 양국간에 무역과 문화교류가 원만하기 때문이라 한다. 여기 저기 한국에서 온 한국여행자들이 많아서 반가웠다.

5월 19일: 국내선 비행기 편으로 '목화' 섬이라는 유명한 온천휴양지에 도착하여 집을 꾸니 벌써 저녁때가 됐다. 풀 사이드 카페에서 전통춤인 벨리댄스를 구경한 후 마침 보름달이 밝은 야천온천장에서 피로를 풀수 있었다.

5월 20일: 아침 일찍 전용버스로 Ephesus에 가는 길에 초대교회의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흔적을 구경했는데 이제는 큰 돌로 쌓아올린 막대한 기둥들만 남아있었다. Ephesus에는 이태리 로마에 있는것 보다는 소규모인 원형극장이 있었고 '셀수스' 도서관, 사도바울의 교회, 사도 누가의 무덤, 성모마리아가 살던 집 등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유적 외에 옛날사람들이 즐겨 다니던 '사찰굴'과 지혜롭게 만들어진 화장실 등이 잘 보관되어 있어 인상적이었다.

5월 21일: 전용버스로 '쿠사다스'항으로 가서 페리를 타고 Patmos 섬으로 이동하여 동굴교회, 암흑의 교회 등을 구경했다. 암흑의 교회는 지하 깊숙이 세워진 교회라 햇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옛날에 그린 벽화가 조금도 색이 바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게 신기했다. 이 섬에 사시는 유일한 한국인 부부가 우리 일행을 안내하시고 이 섬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남편은 목사님이시고 부인은 선교사였다. 이 섬에 오신지 3~4년이 지났으나 아이들을 데려올 수도 없고 한국에 다녀 오기도 힘들어서 이곳에 관광오는 한국인들이 참 반가운 모양이었다.

90% 이상이 모슬렘교를 믿는 이 섬 사람들을 붙잡고 서투른 터키말로 선교를 하면서 성경을 나누어 준다는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힘들고 외로울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밤 12시에 희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 오후와 저녁이 공백이었는데 목사님 부부가 사시는 집에 가서 쉬수 있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다.

11시에 페리를 기다리는 동안 선창가 카페에서 노래하는 분들, 춤추는 분들, 만담하시는 분들 때문에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다. 페리속에서는 네 사람이 한 방에서 자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었었는데 이층으로 된 방에 두 사람은 밑에서 자고 두 사람은 위에

서 잤는데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많았다.

단체여행이란 항상, 장점과 단점이 섞이는것이 당연한데 지내고 보니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다. 터키여행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불편한 화장실이였다. 어느곳에 가나 화장실에 화장지는 없었고 비위생적이다. 화장실에 관한 농담이 있는데 '항문'에 힘을 주고 열심히 닦고 나오는곳, 즉 학교라는 말인데 공립학교는 무료이고 사립학교는 유료인데 비위생적인 것은 다 마찬가지였다. 터키의 특수음식인 '시시카바'는 가끔 먹으면 별미가 있는데 거의 매일같이 먹으니 질력이 났다. "또 개밥이야"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큰 도시에 가면 한국음식점이 있어서 참 좋았다.

터키의 재미있는 습관은 혼기의 처녀가 집에 있다는 표시를 지붕위에 유리병을 올려놓는 것이다. 지참금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병의 크기로 표시한다. 남자편에서 여자집에 청혼을 하러 왔을때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커피에 후추가루와 소금을 쳐서 대접하고 남자가 마음에 들면 설탕을 쳐서 의사표시를 한다. 또하나 재미있는 습관은 사람이 죽으면 똑바로 누워서 묻지 않고 옆으로 mecca를 향해서 묻는다니 이들의 모슬렘 종교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간다. 터키가 EU에 아직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국가로 형성된 EU에 이렇게 철저한 모슬렘 국가를 가입시키기 싫은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는 인권문제이다. 아직도 명예살인제도, 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죽여도 좋다는 관습, 셋째는 희랍이 절대 반대하는 이유는 로마가 터키를 150년 지배했고 터키는 희랍을 400년 지배했다니 천상 원수인 데다가 요즈음 Cypress를 중간에 놓고 한쪽은 터키, 또 한쪽은 희랍이 지배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탓이다.

5월 22일: 드디어 터키의 여행을 마치고 야간 페리로 지중해를 건너 희랍의 피러우스 항에 아침 일찍 도착했다. 전용버스로 '고린도'에 이동 고린도의 유적인 운하를 거쳐 저녁에 아테네 도착하여 하루밤을 편히 쉬수 있었다.

5월 23일: 아침부터 Acropolis에 올라갔다. 올라가는 길의 울퉁불퉁한 대리석이 어찌나 미끄러운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해야 했다. 30년에도 왔던 길인데 그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 다녀서 달아진 길이 그 전보다 더 미끄러워서 애를 먹었다.

여기저기 수리중인 곳을 피해서 돌아가며 올라가야 하는 것은 전과 마찬가지로. Acropolis라는 말은 희랍어로 높은 곳에 올라왔은 섬이라는 말인데 또다시 동감한다.

5월 24일: 철학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감옥을 구경했는데 깊은 산중에 아무도 들어갈수 없는 구덩이를 판 조그만 방에 철창으로 입구를 막은 감옥, 그당시 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해서 이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혔다가 사약을 먹고 처형을 당했다니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밖에서는 많은 제자들을 두고, 강의하고 설교하며 하루를 지내다가 집에 오면 지쳐서 부인과는 말 한마디도 않고 묻는 말에도 대답을 않으니 부인이 계속 소리 지르며 악을 쓰다가 찬물을 끼얹으니 "천둥과 벼락이 치더니 드디어 소낙비가 내리는구나" 했다는 이 철인, 이제는 공원처럼 꾸며놓은 그 산중에서 외롭게 일생을 보낸 그가 너무나 애처롭게 여겨진다.

의학의 선구자인 히포크라테스의 무덤은 경치 좋고 전망이 좋은 산에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제는 현대적인 공원과 놀이터가 되어있다. 그곳 매점에 가서 히포크라테스의 동상을 샀는데 그림에 희랍어로 '히포크라테스의 맹세'가 새겨져 있어서 흐뭇했다. 한국에서 의대를 다닐 때는 한국말로 번역한 이 맹세를 외웠고, 미국에 와서 의사 노릇을 하면서는 영어로 외우며 환자를 봤었는데 이제는 원서로 쓴 Oath를 조각된 동상을 갖게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모든 문화의 근원이었던 희랍이 이제는 완전히 현대화 되어있고 제일의 국가수입은 관광사업이고, 둘째는 선박사업이라 한다. 오나시스와 재클린의 역사적인 결합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다.

터키와 희랍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오는길에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6시간을 지냈는데 넓은 공항에는 모든 명품가게와 식당도 많았으나 제일 인상적인 것은 미술관이였다. 네델란드 출신인 유명한 화가 반 고흐의 그림을 많이 전시해 놓았고, 내가 즐겨읽던 소설 '진주귀걸이를 단 처녀'라는 소설과 거기에 나오는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어 반가웠다.

이번 여행은 참 교육적이었고 인상적이었다. 언제나 외국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다시한번 느껴진다.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내용: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농담골목'에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원고는 사양하오나 2세대의 영문원고는 환영합니다.

사양하는 원고:

- (1) 종교적인 내용
 - (2)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 * 가급적이 1면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실속있는 점치기



김병석(59, 대뉴욕)

수 주일전 한국일보에 <뉴욕잡술가 호황누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요즘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경제 불황때문에 생기고 있는 현상이다. 기사를 읽어보고 놀란 것은 미국 방송에 나온 미국사람들의 얘기였다. 제목만 보았을 때는 으레 한국사람 얘기라고 생각하고 놀라지 않았었다. 한국 사람들은 경제불황이 없어도 흔히 점쟁이 찾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어질 재물 운과 직업운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

경제불안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거나 아예 가게문을 닫게 되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이들이 점술가를 찾는 이유는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우울증을 덜거나 해결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까, 무슨 직업이 나한테 맞으며, 언제 좀 새 직장을 얻게 될까, 등등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다.

요즘 세상에 점쟁이 말을 믿는 사람

은 거의 없다. 누가 미래를 알 것이며 무슨 일을 하면 잘되고 언제 돈을 많이 벌 것인가를 알 것인가? 왜 점쟁이 자신들은 팔자를 못고치나? 이외에도 어떤사람들은 이사를 어디로 갈까, 어떤 집을 고를 것인가, 내 병이 언제 나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것인가, 내 수명이 얼마나 되나, 왜 자식이 없나, 왜 딸만 나오는가, 아들은 언제 낳겠는가, 내 딸이 왜 시집을 못가나, 언제 어떻게 하면 신랑감이 나타날까, 저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등등 거의 전지전능한 대답을 요구한다.

한국사람들은 사주팔자라는 운명관을 믿는다. 사람이 태어날때 그 해와 달과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일생의 운명을 타고난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결국 점쟁이들 돈벌게 해주며 사람들이 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풍조를 만들게 되었다. 이미 자기 운명이 정해져 있다니 궁금하고 알고싶어 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주위사정이 좋지 않을 때 자기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면 누구나 불안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점술가의 점이 불안을 덜어주고 자기의 갈 방향을 과연 알려줄 것인가? 이는 아틀란틱 시티에 가서 노름하는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 나도 점을 쳐본 일이 몇 번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오락에 불과 했다. 그저 재

미 있고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정도였다. 크게 벼슬한 일도 없고 자식을 많이 낳지도 않았으며, 부자가 되지 않았고, 처복이 남달리 많은 것도 아니고, 장가 두 번 간다는 팔자도 보이지 않았다. 한가지 그럴듯하게 느끼는 것은 구설수 조심하라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몇 년을 두고 나는 구설수에 시달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설수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경제불황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정신과를 찾아오는 환자가 요즘 많아지는가? 경제상태가 나빠지면 정신과에 오는 사람은 줄고 점성가한테 가는 사람은 늘어난다.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정신과에 가야하는데도, 또 가고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간다고 한다. 어디가 못견디게 아픈 것도 아니요 또 금새 죽는 병도 아니니 자연히 뒷전으로 미룬다. 신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을 소홀히 하는 버릇도 고쳐야 한다. 이 문제는 언제 또 다뤄 보기도 하고, 사실은 정신과에 가는것이 점쟁이한테 가는것보다 더 싸고 믿을수 있고 알뜰하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다.

정신과에 가면 우선 우울증이 치료되고 불안증을 가실 수 있다. 그리되면 생각이 맑아져 사리판단을 더 잘 할 수 있다. 자기자신을 살펴 보고, 돌이켜 생각해 보고, 자기의 분수와 장단점과 능력을 헤아려 스스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

들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기를 꺼려하고 딴 사람 또는 외부의 어떤 힘으로 돌리려고 한다. 하나님의 역사로, 타고난 운명으로, 전생에 지은 업, 등등을 비난한다. 한국 속담에 <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제 탓>이라는 말이 이것을 잘 설명 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정신과의사 특히 정신분석학자는(가짜를 조심) 사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충고와 예언을 해줄 수 있다. 나는 크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자살직전에 찾아온 몇 사람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일이 있다. 한국사람들은 모두 점쟁이한테 갔는지 이들은 모두 미국사람들이었다.

나는 금강경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 <이 현상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것은 영원한것이 없다.> (諸相無常) 이라는 말을 그 사람들의 치료에 적용했다. 이들은 모두 단시일내에 회복하고 재기하여 새로운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늘 감사해 하고 있다.

어려운 때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신의 감정 문제부터 해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재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난관을 극복하는 첩경임을 명심해야겠다. 서양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던가.

북 불란서의 Norman 족이 Normandy 공작(William the conquerer, 후에 윌리엄 1세가 됨)의 영도 아래 영국을 침입하여 Saxon 왕을 물리치고 영국을 통일하여 노르만 왕가를 세운 것은 1066년 이었다. 이 노르만 왕가의 3대 왕인 헨리 1세의 딸이 불란서의 Jeffrey(Anjou 백작)와 결혼하여 그들 사이에 난 아들이 Stephen 왕을 계승하여 왕위에 올라 Henry 2세가 됨으로써 새로운 왕조인 Plantagenet 왕가가 시작되었다(1154).

Plantagenet 이란 이름은 Jeffrey의 별명으로 그가 모자에 Broom plant (broom 을 라틴어로 genet이라함)의 가지를 꽂고 다녔다는 이유에서 유래되었다. Plantagenet 왕조는 헨리 1세의 딸을 통한 노르만 왕조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세익스피어는 이 Plantagenet 왕조의 13왕중 여섯 왕(King John, Richard 2세, Henry 4세, Henry 5세, Henry 6세, Richard 3세 - 역대순)과 다음 왕조(Tudor Dynasty)의 2대 왕인 헨리 8세를 주제로 영국 왕가에 대한 10편의 역사극을 썼다. (Edward 4세와 후에 Henry 7세가 된 Henry Tudor는 Henry 6세 및 Richard 3세 극에 등장 인물로 나와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따로 극을 쓰지 아니하였다.)

영국왕실을 소재로 한 세익스피어의 극들은 주로 Holinshed's chronicles에 입각하여 쓰여진 역사극들이나 어디까지나 드라마를 통한 문학작품이며 정통적인 역사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역사극들은 100년 전쟁(Hundred years' war)과 장미전쟁(War of the Roses)을 통하여 본 영국의 불란서와의 대결과 불란서 왕가와 얽혀진 영국왕가의 당파전 그리고 영국 왕들의 교황청과의 알력을 기록한 영국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의 역사관이 기도 하다.

구약성서에도 왕권이 강했던 군주시대에 보는 왕위계승을 싸고 일어나는 비극들은 오히려 불가피한 인간의 죄의 역사이기도 하다. 영국 왕가의 경우에도 유혈참극이 Plantagenet 왕조를 붉게 물들이고 천추에 씻지 못할

세익스피어의 희곡을 통하여 본 영국 왕실의 비극 (1)

정의철(61, 후로리다)



원한과 저주가 왕실에 사무쳤다. 세익스피어는 이 비극들을 희곡화 하여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Parliament가 있었고 John 왕의 말년에 Magna Charta가 입법되어(1215) 왕들의 독재가 견제되었다. 또한 기독교 사상에서 오는 일부일처주의가 그당시 사회에 뿌리깊이 내려 이씨조선에서 보는 왕비나 후궁들의 외척세력의 창궐로 인한 권력투쟁이나 왕비들의 질투에서 빚어지는 왕족상잔은 없었다.

King John

John 왕은 Plantagenet 왕조의 3대 왕으로 형 리처드 1세의 후계왕이다. 이 왕가의 비극은 리처드 1세가 죽은 후 그 다음 형(이미 죽은)인 Geoffry의 어린아들 Arthur 왕자를 제쳐놓고 John이 왕위에 오른데서 시작된다. Arthur 왕자가 불란서에서 불란서 왕의 보호아래 있었으므로 불란서 왕 Philip 2세는 대사를 통해 John의 왕위를 불법이라 선언하고 Arthur가 물려받을 영국의 영지(윌리엄 1세가 소유하던 불란서 땅인 Poitiers, Anjou, Touraine, Main)와 영국 및 아일랜드의 모든 영토를 Arthur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John 왕은 이에 맞서 불란서와 전쟁을 하게 된다. 이 전쟁은 John 왕의 질녀인 Blanche가 불란서 왕자와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일시 휴전되었으나 교황의 반대로 휴전이 파기되었다. John 왕은 교황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황과 오랜 대립을 이루어 교황의 미움을 사고 있었다. Arthur 왕자는 영국군에 의해 체포되어 영국으로 압송되어 와서 할머니와 숙부인 John 왕의 보호 밑에서 지내게 된다. John 왕은 숙부의 입장에서 조카인 Arthur를 보호한

다는 표면적인 태도와는 달리 그를 죽일 계획을 한다.

Arthur는 왕의 하수인의 동정심으로 죽음을 일시 면했으나 도망하려고 감옥의 성벽을 뛰어내리다가 죽음을 당한다. 울부짖는 Arthur의 어머니 Constance의 모습은 독자의 가슴을 찌른다. 아들 Arthur를 왕위에 오르게 할 결심으로 시어머니와 시동인 John 왕과 꾸준히 대결해 왔던 어머니의 원한과 슬픔을 달랠 수가 없다.

한편 불란서의 왕자 Louis는 이미 John 왕의 질녀와 결혼하여 John 왕의 왕위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자기가 자기 처를 통하여 합법적인 영국 왕위 계승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여 영국을 침범한다. 그러나 영국 해안에서 양국의 군대가 풍파를 맞아 침몰하고 다시 휴전이 이루어진다. 이 휴전은 John 왕이 교황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고 교황의 대사의 평화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John 왕은 한 수도승(monk)에 의해 독살되고 그의 아들 헨리가 임종을 지켜보면서 왕위를 계승하여 Henry 3세가 된다.

Richard 2세

Plantagenet 왕조의 8대 왕인 리처드 2세는 에드워드 3세의 손자이다. 에드워드 3세는 일곱 왕자와 넷 공주를 두었으나 아무도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첫 왕자(Black prince)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 리처드 2세가 된다.

리처드 왕의 숙부 Gaunt(Lancaster 공작)의 아들인 Henry Bolingbroke(왕의 사촌)는 Mowbray(Norfolk 공작)가 공금을 횡령하고 자기와 왕의 숙부인 Gloucester 공작을 죽였다고 비난한다. Mowbray가 이를 부인하고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결투를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여 왕에게 결투의 허락을

신청한다. 왕은 이 두 신하에게 화해하기를 간곡히 권하였으나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결투의 준비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왕은 결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결투를 중지시키고 Mowbray에게는 종신 해외유배를 명하고 Bolingbroke에게는 5년의 해외 유배를 명한다.

한편 살해된 Gloucester 공작의 부인이 Gaunt 공작에게 자기 남편의 원수를 갚아 달라고 애원한다. Gaunt 공작은 Gloucester 공작을 죽인자는 왕이며 왕의 뜻은 하늘의 뜻이니(왕은 하느님의 대리자임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도록 타이른다.

왕은 숙부인 Gaunt 공작이 죽자 그 아들 Bolingbroke로부터 유산과 영지를 몰수한다. 또한 리처드 2세는 아일랜드 정복을 피하여 나라의 재력을 탕진하며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국외로 추방당했던 Bolingbroke가 군대를 일으켜 아일랜드에서 돌아오는 리처드를 맞아 그로부터 왕위의 이양을 강요한다.

Bolingbroke 는 이 일에 Northumberland 백작(리처드 2세의 신하)과 그의 아들 Hotspur 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 왕위 찬탈에 반대를 해오던 Bolingbroke의 숙부인 York 공작의 승인을 받는다.

리처드 2세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던 Northumberland 백작의 배신에 실망하고 숙부 York 공작의 뜻에 순응해서 자기의 왕위를 Bolingbroke에게 순순히 이양한다. 폐왕이 된 리처드는 Pomfret 성으로 옮겨가면서 불란서로 떠나는 왕비와 슬픈 작별을 한다. 자기는 죽은 것으로 생각하라고 타이르면서 "긴긴 겨울밤 오랜 친구들과 불 옆에 앉아서 그들이 옛날에 일어난 자기들의 불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거든 잠자리에 들기전에 그들의 슬픔에 답사하듯 당신은 나의 서러운 사연을 들려주어 듣는 이들이 울면서 잠자리에 들게 하시오. 무심한 장작불도 당신의 메인 목소리에 따라 울면서 불이 다하고 정통 왕의 폐위를 애도하며 재가 되고 숯이 될 것이오"라고 말해준다.

<다음호에 계속>

요람인 모교를 회상하며

장수의 비결이예요



신 명 수(56, 커네티컷)

알빈 토후러(Alvin Tofler)의 Future Shock(초편)을 읽어보면 근대의 급속한 문화발전을 정확히 분석하여 많은 독자들에게 감격을 주었다. 저자 토후러에 의하면 약 2백년전만해도 인간들이 동굴 속에서 원시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현대문화 발전의 혜택을 받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속에서 생물(식물, 동물)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각자의 본능(instinct)을 유지하고 종족의 보존을 위하여 자연도타를 받지 않기 위하여 직접 간접 노력하고 장수할 도모하며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에 해로운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위하여 항생제를 연구하여 감염과 전염병 등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병원균은 항생제와 환경에 적응하여 변질되고 있으며 의사들의 남용에 따라 과학자들의 큰 고민이 되고 있다.

과거 의학사를 보면 Sir Alexander Fleming(1928)이 mold(곰팡이) 연구중 페니실린 발견하여 2차 대전시(1944) 2천3백만 dose로서 군인들의 감염병을 치료했으며 그후에 인간의 건강유지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러나 현재 항생물질 과용으로 앞날의 전염병이나 감염병 치료가 의문이다. 그 이외에도 가장 건강유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암(폐, 위, 간, 유방 등)diabets, multiple sclersis 등 난치병으로 의사들이 골치를 앓고 열심히 연구하여 새로운 약을 발견하고 치료에 노력하고 있으나 연구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큰 문제(Incorporate scandal)가 되고 있다. 어떤 약들은 건강에 유해되어 시장에서 제거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동안 개인의 건강유지가 가장 중요하며 누구나 건강해

야지만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인은 1956년에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방사선과 전공하다가 1957년 7월 1일에 도미하여 1962년에 방사선과 전공을 마치고 Western Reserve 대학에 있을때 모교 의대 나세진 학장님의 간곡한 요청으로 1963년 7월 1일에 모교에 돌아가서 1967년까지 교편을 잡게 되었다. 당시 미국 국무성 원조로 미네소타 대학 교수진 교환도 있었고 병원시설 개선, 교육재료 보조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때 Dr. Neal Gault(미네소타 의대 부학장)의 열성으로 미국 의학교과서 저널 등도 발송되어 당시 학생들과 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CPC 등 미국식 의학교육이 실시되어 학생과 레지던트 교육에 대단히 편리하였다. 이때 교환교수제로 인하여 모교 교육수준이 많이 오르게 되었다.

본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학생과 레지던트 강의와 방사선 사진판독 등으로 전혀 밖에 나갈 시간이 없었다. 하루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병원과 기초본관 사이를 돌아보았더니 기초본관 옆에 농구시설이 되어 있으며 김운자 교수(53)는 기초학생들과 점심시간을 즐기시며 운동하시는 모습도 보았으나 당시 병원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었다. 함춘원 안에 철봉이 하나 있어 본인은 그곳에서 턱걸이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었다.

하루는 병리학 교수 이성수 박사(46)께서 내가 턱걸이와 운동하고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셔서 "닥터 신,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예요?" 하고 문의하셔서 꼭 당황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셨다. 그후 3-4개월 후에 이 교

수님께서 병원 방사선과 본인 방에 찾아오셔서 "닥터 신, 근래 나의 가슴 옆구리가 아픈데 흉부사진을 찍어 줄 수 있어요?" 하시기에 곧 교수님의 흉부사진 촬영을 해 보았다. 내가 그 자리에서 진단을 붙였으나 이 교수님께 "제가 사진을 더 자세히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하고 그 사진을 기초본관의 나세진 학장님을 찾아가서 진단을 말씀드렸다. 학장님께서는 곧 급고에다 보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현재 미국의 HIPA 법령과 같이 병환의 소문이 나지 않게 하신 셈이다. 애석하게도 이성수 교수께서 몇 개월 후에 별세하셨다.

이성수 교수는 아주 우수한 병리학 교수로서 6.25사변전에 뉴욕에 오셔서 코넬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병리학을 전공하시고 내가 1952년에 공군에서 학장복귀 제대후 부산의 전시연합대학(서울의대, 여의대, 이화여대 등)에서 2학년 병리학 강의를 받았다. 그때 신장동맥경화증의 병강의를 받던 생각이 아직도 선명히 난다. 당시에는 이제구 교수(학장) 윤일선 교수(대학원동)도 강의를 하셨다.

지금도 가끔 이성수 교수님의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하시던 음성이 들리며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동양(일본 중국 한국 등)에서는 강장제로 인삼과 녹용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것 같다. 1957년에 미네소타 대학에 모교 고참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셨다. 그때 오진섭(약리과장), 홍사악(약리교수), 이영근 교수(흉부외과과장), 김흥기 이비인후과 교수 등을 만나 밥기 위하여 1957년에 찾아가서 낚시도 하고, 김흥기 교수님의 훌륭한 솜씨로 지으신 성찬으로 저녁도 잘 먹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인삼이 강장제 인니까?"하고 오진섭 박사께 문의했더니 미네소타주의 산에 인삼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약물의 정성과 정약분석해 보았는데 아무런 유효한 약물질이 없다고 하시었다. 1945년 왜정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승만 박사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후 시골의 어느 농

부가 육적이나 되는 산삼을 발견하여 이 대통령에게 장수를 빈다 하며 선사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장수하셨는지 궁금하다. 근래에 홀몬과 비타민 등 대량복용하면 좋다 하지만 역효과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1949년 의예과 시절에 모두 이해하기 힘든 physical chemistry를 황특현 교수께서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던 생각이 난다. 이때 제일종 영구기관(perpetual engine)에 대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며 발견하게 되면 노벨상을 타게 된다 하시었다. 가끔 과학잡지를 읽어보며 얼마나 연구가 진행되었나 살펴본다. 근래 의학의 유전학이 많이 발전되어 혹시 인간에 새로운 유전인자를 이식할 수 있으면 perpetual human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이런 연구가 가능하면 장수 비결이 될 수 있겠지.

과거와 현재의 과학과 의학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많이 연장되어 근래에 100년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비교적 의학이나 과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남아메리카(과테말라) 일본과 한국의 시골에서 원시적 생활하고 있으나 100세까지 산다 하니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지 puzzel(수수께끼)이다. 이성수 교수께서 별세하신지 4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며 가끔 장수의 비결을 생각해 보지만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

혹시 육체와 정신운동(exercise)이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며 지금도 조석으로 운동하고 예일대의(Yale) 학생들과 레지던트 지도를 하고 있다.

돌이켜보니 1967년 말에 다시 도미하겠다고 나세진 학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신명수는 미국에 다시 돌아가면 안되어! 모교 앞마당에 백골을 묻고 죽어야 해!" 이렇게 충고해 주신지 4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모교의 많은 발전을 볼 수 있으니 흐뭇하고 감개무량하다. 과거에 약소하지만 다소의 공헌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월 초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신문과 저녁 뉴스는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기사들로 쪼여져 있다. 하버드대학 금년 학비가 오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며 학생들이 온 식구를 동원해서 한 살림을 기속사로 옮기는 장면을 보기도 한다. 학부모는 자식들이 일류 대학에 들어가게 된 들뜬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학비조달걱정의 먹구름이 태풍처럼 닥쳐올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빚을 산더미처럼 지는 것이 삼례라고 한다.

6.25사변이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과 함께 가져온 사회적 변화중의 하나는 지방학생들이 진학목표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다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이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상류의 집안이 아니면 그렇게 과감한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이런 변화의 풍조에 실려 1955년에 나도 서울의대에 입학하게 되었다. 입학등록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가 입학금이니 하숙비 등 쓰게 될 돈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물으시다가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표정에서 나는 벌써 수심의 먹구름을 짐작 했다. "나는 니가 의과 대학 간 것만도 좋다." 라고 말씀하시든 그 생각에 나의 코가 시름해진다. 이력저력 대학생들의 첫 한 해는 하숙을 하면서 편하게 보냈다. 그러나 다음해부터 집에서 오는 송금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 했다. 나는 그 의미를 알았으며 처음으로 나 자신의 앞날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지방에서 서울에 유학 온 학생들 중에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다. 그들이 어떻게 학비를 조달하고 어떻게 서울서 학생생활을 꾸려나가는지를 물어볼 때 하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들의 집안이 넉넉했으리라 보겠지만 그렇다고 그 부모들이

소를 팔든지 전답을 처리해 가면서 학비 조달을 하여야 할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길이 보편화 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에도 여러 가지인데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가정교사였으며 서울의대 학생들에게는 자리가 비교적 쉽게 구해졌다. 또 한 가지는 셋방을 얻어 자취를 하는 것이다. 나는 한 친구의 누이가 서울까지 와서 대학 다니는 오빠를 위해 공장 일을 하면서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부산고등학교에서 같이 진학했고, 한반에서 성이 기억자로 시작했기에 번호가 일, 이, 삼번이었고 서울의대에도 같이 진학하고 또 한 실습그룹에 속하게 된 친구가 있다. KY군과 KE군이다. 우리 셋은 함께 불어 다녔고 형편도 다 비슷했기에 생활비 걱정도 함께 하였다. 본과 이학년 때 KE군이

기발하게 생각을 하여 교수들에게서 한 켄터의 강의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읽기 쉽게 노트 정리하는 형태로 등사를 하여 클래스에 파는 것이었다. 수입이 짤짤했다. 등사지를 굶는 것은 내 몫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졸업한 훗날에는 전문화되어 인기있는 서울의대 교재 발간의 역사적 발단이었던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 셋은 더 절약할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다. 그때 KY 군은 또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 우리 셋이 자취를 하는 것이다.

"너희들, 밥하고 된장국 끓일 수 있겠나?", 내 입에서 나온 염려스런 도전이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을 벌써 KY가 잡아두었기에 이런 안이 나온 것이었다. 셋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한 푼 들지 않고도 수도와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은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건물 건너편에 있는 학생공실이라는 아담한 벽돌양옥 이다. 이 건물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고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었다. 이 건물의 방 하나는 약 15평가량 되며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있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있었지만 먼지를 쓸어내고 청계천 미군 폐품 가게에서 균용 목침대 셋을 사고, 양철로 만든 무연탄 스토브를 하나 사서 설치하니

세 사람이 쓸 만했다. 취사도구는 KE군이 친척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고 송판을 재목상에서 몇 장 사서 책상과 살감을 만들었다. 교대로 끄치찌게와 밥을 했고 가끔 친구들을 불러서 술값 걱정 않고 끄치찌개를 안주삼아 소주를 마시기도 했다. 장은 늘 명륜동 시장에서 봤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짐작하고 덤을 주기도 했다. 친척들께서 주신 김치, 식혜나 젓갈 등을 곁들이면 며칠은 만족스러웠다. 우리 셋은 이제 끄치찌게와 끄치찌개 전문가가 되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변소였다. 학교 변소나 병원 변소를 사용하면 뽕이나 한겨울밤에 옷을 다시 갈아입고 코트를 걸치고 병원까지 가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연탄 재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요즘 같이 쓰레기 모으는 곳이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구름마가 다니는 곳도 아니었다. 나중에 처리 한담시고 스토브 옆에 그냥 둔 것이 날이 가면서 미루고 미루어 이것이 방안에 쌓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연탄재 무더기를 피해서 방안을 드나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 키 만큼 쌓이게 되었다. 마침내 하루는 KE군이 명주환 학장에게 불려갔다. 학장님이 이 현상을 발견 하신 것이다.

"빈방 쓰는 것 눈감아 주었더니 어찌 방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리하여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것으로 약 반년 남짓을 때문 셈이다. <다음면에 계속>

자취생활

강 창 욱(61, 커네티컷)





인류의 문명 I

임 낙 중(59, 메릴랜드)

지구 밖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지구의 모습은 내가 본 어느 보석보다 아름답다. 표면의 삼분지 이가 바다로 싸인 지구가 햇빛을 반사하며 파란 구슬처럼 반짝이니 아름답기 그지없다.

왜 그렇게 아름다우며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눈을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인간의 행위 등 미는 도처에 있고 미가 무엇인지 모른 사람은 없겠지만 내게 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한다면 내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

미국의 저명한 이십세기 철학자 Santyana는 "Beauty does not reside in the object, but in the individual's sense of beauty" 라고 했다. 이어서 "Beauty is the manifestation of God to the senses" 라고 했다.

인간의 감각과 신에다 설명을 미루면 설명이 끝난 것일까.

인간의 미에 대한 감각, 이성과 아마 영혼이 있다면 영혼까지도 타고 나는 것 같은데 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교육을 받기 이전에도 꽃, 달 등 아름다운 것과 지렁이, 뱀 같은 것을 구별하는 미와 추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것 같다.

두 살짜리 내 손녀도 여러 개의 인형 중에서 제일 예쁜 인형을 골라 가지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 늘면서 미의 감각이 점점 더 발달하고 세련되는 것도 사실이다. 후천적 요소도 가미된다.

애기가 잠시 흘렀지만 아름다운 지구로 돌아간다.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중의 하나이고 하루 한번 자전을 하면서 초당 18.55 마일로 타원형을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태양 자신도 자전을 하면서 태양계 안에 다른 별들과 함께 은하계 안에서 그 중심 주위를 도는데 초당 이백이십 킬로미터로 돌고 있으며 그 궤도를 한번 도는데 이억이천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은하계가 생긴후 태양계는 스물한번쯤 그 궤도를 돌았고 은하계 자신도 사천억 별들과 함께 초당 삼백 킬로미터로 우주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전에 은하계의 별 수가 이천억 이라더니 최근 추산으로는 사천억으로 늘었으니 그리고 그 많은 별들이 쉬지 않고 돌고 있으니 상상만 해도 몹시 어지러워진다. 또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수없이 많고 매년 새로운 태양계가 발견되고 있으며 은하계와 같은 galaxy 수가 현재 이천억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입을 다물 수 없다.

자취생활

(전면에서 계속)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 크게 아픔을 느끼지는 않지만, 하루가 멀지 않게 늘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던 시절, 그때 시험공부까지 겹치면 그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용케 견디었다. 분명히 이런 것보다 몇 배 더 고생한 서울 유학생들이 있었으리라 믿는다. 요즘 미국 대학에서 15%가량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서 학업을 중단 한다고 한다. 글썄, 나는 웬지 우리가 겪은 것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보고 싶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도 이런 경험을 스트레스나 외상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을까?

나는 가끔 천문학자들이 미치지 않고 제 정신을 보존하는 것이 신기롭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별이 많아도 지구 외에 생명이 살고 있는 별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별에 생명이 존재하려면 지구와 같이 알맞은 온도와 햇빛과 물이 필수조건이다. 또 현재 인류와 같은 발달한 문명의 증거가 radio signal 인데 아직 다른 별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radio signal이 없으므로 다른 별에 발달한 문명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것도 신기하다.

간추려 말하자면 지구라는 별은 구슬처럼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인류와 같은 문명을 가진 생물이 사는 단 하나의 별로 알려져 있다. 우주의 어느 구석에 지구와 같은 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공중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은 땅이라 칭하시고 물은 바다라 칭하시니 라고 쓰여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계속 발전하는 근대 천문학 등 과학을 외면하면 머리가 복잡해 질것이 없으려면 종교와 과학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속담대로 나는 사서 고생을 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종교는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과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믿은 것이므로 서로 모순없이 양립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때때로 혼란스럽다.

애기가 또 옆으로 흘렀다. 다시 아름다운 지구로 돌아간다.

지구는 사십오억육천칠백만년에 가스과 돌덩어리들이 급히 회전하면서 고열이 발생하여 그 중심부엔 해가 생기고 그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태양계의 여러 별이 탄생할 때 생긴 별의 하나다. 처음에 불덩어리였던 지구가 식으면서 생명이 화성에서 지구로 왔다는 설과 지구 자체에서 생겨났다는 설이 있지만 생명이 지구에 존재하기 시작하고 진화를 거듭했다고 과학은 설명한다.

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생물을 지었다는 창조설도 있지만은 어느 설이 맞던지 간에 이억삼천만년과 육천오백만년전 사이 일억육천만년간은 dinosaurs가 지구에 번성했던 사실은 화석을 통하여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다.

Dinosaurs는 원래 한 덩어리였던 육지가 지각의 변동으로 여러 대륙으로 갈라질 때 여러 종류로 분화가 심해졌다.

Genome 연구에 의하면 인류의 조상은 불과 육백만년전 경에 chimpanzee와 갈라졌다고 한다.

약 이백만년전 대뇌의 부피가 커지고 Homo erectus는 칠십구만년과 백육십만년전 사이에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다.

이백만년이란 세월은 다이나소스의 일억육천만년이라는 역사에 비하면 참으로 짧으니 인류는 갓난 아이의 나이도 되지 못한다.

Homo sapiens는 여러 sub species로 진화하였으나 Neanderthal 종을 위시하여 다 멸종했고 지금의 인류는 이십

만년전 아프리카에서 기원하여 세계로 번진 호모 사피엔스로 두뇌의 크기가 약 1,400 입방센티미터나 되어 침팬지의 두배나 큰 대뇌를 가지게 되었다.

만일 유전자의 변이로 인간의 두뇌가 지금 사는 인간의 두배가 된다면 지금 인류가 알지 못하는 신 창조, 우주 등의 많은 비밀을 풀 것이니 상상만 해도 재미있다.

인류는 큰 대뇌와 정교한 손의 자유로운 구사(두 발로 걷은 잇점은 손의 자유로운 구사를 허용했다)로 인류의 문화 문명은 경이적 발전을 했다.

최근 뉴스에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Steven Hawking 박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인류가 백년을 더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천이년도 세계 핵무기 보유가 약 이만개라고 추산하다니 사고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도 인류 멸망의 가능성의 한 예다.

극히 짧은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멸망으로 달음질 처갈 가능성은 너무나 많지만 상상에 맡긴다.

예정론(predestination)을 믿으면 인류의 문명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내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으나 인간의 이성은 예정론에 운명을 맡겨놓고 지구의 현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인류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철학자 Herbert Spencer(1820~1903)는 "선한 행위는 더 진화한 행위로, 악한 행위는 진화가 덜 된 행위다. 생명이 더 완전하고 조화롭게 되는 것이 진화의 진로다" 라고 생각했다.

진화가 어느 단계의 완성에 도달하면 불안정하게 되어 다시 분해, 붕괴가 일어나고 진화가 또 시작한다고 그는 말했다.

스펜서의 이론대로 진화가 선한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Hegel(1776~1831)의 변증법을 빌리면 역사는 These, Antithese, Synthese의 세 개의 단계를 반복하는 주기적 운동이다. 즉 우주의 어떤 상황에 대한 정설이 확립되면 이 정설이 부분적 진리를 표현하는 만큼 이 정설에 대한 비판이 일어날 것이고, 이 비판의 정당성을 흡수 종합하여 좀 더 바른 진리로 합한다.

이러한 주기적 역사 운동이 바른 진리로 향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까?

역사에 주기적 운동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방향이 반드시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말을 바꾸면 인류는 멸망의 방향으로 치달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과연 인류의 가는 길은 어드메일까?

농담골목

기독교를 믿지 않는 노인이 얼마전 부터 마누라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전 부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변소에 가서 문만 열면 불이 저절로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스위치들 누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노인이 이러한 사실을 목사에게 말해주고 감사기도를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목사가 "그럴 리가." 하면서 주저주저하니 영감님이 "아니 목사님은 기적도 몰라요"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목사가 간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후 목사가 이 사실을 그 노인의 부인에게 알렸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그러기에 요즈음 냉장고에서 지린내가 진동하고 있군." 라고 했습니다. (면)

유태인 남자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천주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갔습니다. 접수인이 유태계 아이는 거기서 수영을 못한다고 하니, 그가 "나의 처는 천주교 신자요. 그러니 이 아이의 배꼽까지만 물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오." 라고했습니다. (면)

여자의 거짓말

- 비밀을 지킬 수 있단 말이예요. 내 입이 얼마나 무겁다구요.
- 남자라는 동물은 생각만 해도 지긋 지긋해.
- 이 일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 부인과가 뭘하는 병원이지요?
- 지금 생리중이에요.
- 위자료같은건 더러워서 안받아요.
- 난 아직 아무것도 몰라. 아마 불감증인가 봐.
- 섹스기사 같은건 절대로 읽지 않아요.
- 그 지식 내가 찾아.
- 난, 죽으면 죽었지 거짓말은 못해요. (이덕송)

남자의 거짓말

- 이 호텔 성냥 친구한테서 얻은거야.
- 난 공처가거든 당신이 정말 무서워.
- 교제상 할 수 없이 마신 술이야.
- 그까짓 직장 당장 사표내고 말테야.
- 난, 조루증이 아니란말이야
- 공부하느라 연애할 겨를이 없었어.
- 술은 내 돈 내고 안 마셨어, 얻어 먹었지.
- 난 오입 같은건 못 하는 성미야.
- 죽도록 사랑해, 당신없인 못살아.
- 난, 거짓말은 절대로 안해. (이덕송)

정치인과 개의 공통점

- 가끔 주인도 몰라보고 짓거나 덤빌 때가 있다.
- 먹을 것을 주면 아무나 좋아한다.
- 무슨 말을 하든지 개소리다.
- 자기 밥그릇은 절대로 뺏기지 않은 습성이 있다.
- 매도 그 때 뿐 옛날 버릇 못 고친다.
- 족보가 있지만 믿을 수 없다.
- 미치면 약도 없다. (허선행)

내일이면 이곳 마드리드를 떠난다. 참, 오늘은 세고비아(Segovia)를 가보기로 하였는지.

호텔에서 주는 아침이 호텔 방값에 포함 된것인줄 알았더니 어제 먹은 아침 값이 한 사람당 30유로씩 포함 60유로나 나왔다. 그러면 \$80이나 되는 돈. 살인적 물가로구나. 그래 오늘 아침은 2-3분 걸어 가면 되는 거리에 있는 Starbuck에 가서 크로와상 한 개와 Cafe Americano(이곳 진한 커피를 묽게 한것) 그리고 홍차 한 잔을 사가지고 호텔방에 돌아와 먹었다. 포함 7유로 들었다.

처음 가보는 기차역이라 조금 일찍 나와 택시를 불러 타고 샤마틴 역(Estacion de Chamartin)으로 향하였다. 역사는 제법 컸다. 마드리드 북쪽 방면으로 나가는 기차들이 떠나고 들어오는 곳이었다. 커다란 안내용 스크린에 내가 타야 할 열차 번호와 출발 시간은 있었는데 출발 플랫폼 번호는 아직 안나와 있었다. 아마 출발 시각이 임박해야 발표 하는 모양이다.

기차 표는 어제 호텔 데스크에서 컴퓨터로 구입을 해 주어서 차량 번호와 좌석 번호는 가지고 있으니 시간이 될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았다. 역사에는 세계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로 매점과 간이 식당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표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아도 되게끔, 매표소에 들어오는 순서 대로 번호표를 기계에서 뜯어 가지고 있다가 전광판에 그 번호와 창구 번호가 나오면 그리로 가서 표를 사게끔 되어 있었다.

좀 있다가 우리가 탈 기차의 출발 플랫폼 번호가 스크린에 나오면서 안내방송도 나왔다. 출구 번호를 확인하고 그리로 향했다. 기차는 마치 프랑스의 TGV나 한국의 KTX 같이 생긴 날씬한 유선형에 차량이 4개 밖에 안달려 있다. 이 열차는 ADIF (Administrador de Infraestructuras Ferroviarias*: 열차 인프라스트럭처 건설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역사도 철로도 기존 RENFE (Red Nacional de Ferrocarriles Españoles*: 스페인 국립 철도 회사)와는 다른 새로 만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나 보았다. 이곳 마드리드 역사는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註: Ferrovias=railways, Ferrocarriles=railroads (우리가 쓰고있는 鐵道는 아마 일본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그대로 쓰고있나 보다.)



시간이 되자 기차는 미동도 없이 정시에 출발 하였다. 열차 안은 비교적 차가운 날씨임에도 관광객들로 거의 다 찼다. 세고비아에는 30분쯤 걸려 도착하였다. 어제 다녀온 살라망카(Salamanca) 보다 가깝구나. 도착한 세고비아의 역사는 새것 이었다. 관광 안내소가 있길래 지도와 필요한 정보를 얻으러 들어 갔다. 중국인 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앞에서 브로큰 잉글리쉬로 안내하는 여자와 힘든 대화를 하고 있었다. 남자 친구의 영어가 짧음에도 무언가 자꾸 자기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것 같은데 안내양이 힘들어 하는 것 같다. 대화에 끼여 들까 하다 그만 두었다. 요즘 중국 사람들은 단체 여행을 졸업 하고 이렇게 단독 여행 할 정도로 발전한 모양이다. 아마 자기 나라에서는 꽤나 잘 사는

사람들 일 것이다. 자기 나라에서 재다가 나오니 이런 외국에서도 그 태도가 별로 세련되지 못 하였지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해 본다.

드디어 그들의 긴 대화가 끝이 나고 내 차례가 되어 이 곳 지도를 한장 얻고 기본 정보를 물어 보니 여기는 시내 중심부에서 30 km쯤 떨어진 신역사이고, 구역인 RENFE 정거장은 시내 가까운 곳에 있으니 마드리드로

여행 낙수 (旅行 落穗) 돼지 고기 이야기

돌아갈때 조심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몇번이나 당부 한다. 그리고 택시는 비싸니 이 앞에서 기다리는 시내버스를 타면 시내 중심부 가까이 있는 로마시절 수도관 (Roman Aqueduct) 유적 앞에서 내려주니 그리 하란다. "Thank you, I'm not Chinese!" 하니 안내양이 심곳이 웃는다.

역사에서 나와 보니 버스가 기다리고 있다. 이곳은 주위를 높은 산들이 둘러 싸고 있는 분지 이다. 그래서인지 바깥 온도가 좀 낮은 것 같다. 꽤나 쌀쌀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멀리 보이는 눈 덮인 산 봉우리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경치가 제법 좋다.

맨 앞의 버스는 이미 사람이 가득 타고 있고 그 뒤에 있던 버스가 우리 앞으로 와서 선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아까 안내소에서 보았던 그 중국인 부부가 내뒤에서 새치기 하려는 지 나를 살짝 밀기에 'Excuse me!'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니 여자가 머쓱해서 물러 선다. 아, 그 후진국 근성은 어디가서도 버리지 못하는구나.

버스종점에 도착하니 운전기사가 있다가 돌아갈때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버스를 타야 역사로 간다고 주의를 준다. 건너편에 보니 일반 시내버스가 이 정차하고 있는데 밖의 모습은 똑같다. 내 스페인어 실력으로는 잘못하면 다른데 가는 버스를 탈까 보아 정차 지점의 지형 지물을 다시 세심히 관찰 하고, 마누라에게도 잘 보아 두라고 당부 하였다.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 오는 것은 로마시대 수도관 (Roman Aqueduct; Acueducto romano) 인데 기원 1세기에 로마인들에 의해 세워져 19세기까지도 사용이 되었다 한다.

세고비아는 로마와 무어인들의 통치 이 나 이름으로 Segovia (Σεγοβία, Ptolemy ii. 6. § 56) 라고 불리었는데 이것은 헬라어(Celtic)로 '성채'를 의미 한다고 한다. 슬슬 걸어서 시내 중심부로 들어가는 변화가 골목길을 올라갔다. 날씨가 약간 쌀쌀해서인지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시청앞 광장(Plaza Mayor)에 도착 해 보니 대성당이 바로 앞에 버티고 있다. 이왕 왔던 길이니 들어가나 보자고 하여 들어가 보니 여타 다른 도시의 성당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 약간 실망하고 나왔다. 다시 같은 골목 길을 따라 성(Alcazar)으로 가는 길을 계속 걸어 갔다. 한 10 여분 걸어 가니 시내 서쪽 끝 베타위에 자리 잡은 성이 나타난다. 이 성은 1410-1455 에 축조 되어 1862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 르와르(Loire) 계곡의 성들 (Chateaux)과 비슷하게 생겼다. 아마 프랑스 Bourbon 왕가가 스페인 왕위를 잇게 되어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성안의 전시품들은 전부 모조품인것 같았다. 옛날 기사들의 갑옷, 무기들, 녹슬은 대포들...

이렇게 추운 돌로 된 집에서 어떻게 겨울을, 아니 사시사철을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마누라가 중얼거린다. 하긴 호흡기 질환에 류머티스 성 관절염에 고생해나 했을것 같다. 성안이 너무 추워서 구경을 대충 마치고 나왔더니 햇빛은 쨍쨍한데 아직도 좀 춥다. 아마도 고원 지대라 그런 모양이다.

출고 배도 고파져서 아까 이리로 올 때 보아 두었던 허름한 식당에 들어

이 건 일(68, 오하이오)

가기로 하였다. 안에는 동네 사람 두어명이 이른 술을 마시고 있었고 한 노인이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다. 날씨가 추우니 파리는 없구나.

메뉴를 보니 세 코스짜리 점심이 11 유로라. 나는 그걸 시키기로 하고 우리집 사람은 스파게티를 먹겠다. 아 니 이 스페인 시골에서 파스타가 된 말이냐고 해도 막무가내다.

첫 코스로는 숲이 있는데 스페인어로 sopa de huevo 어찌구 하고 써 있다. huevo가 달걀인 것은 안다. 그래서 아하 아마 중국식 egg drop 숲 같은 건가 보다 하며 그걸 시키고 메인 디쉬는 쇠고기요리, 디저트로 이곳 특산 달걀 custard를 시켰다. 숲이 왔는데 맛을 보니 그저 먹을 만 하다. 달걀 하나가 들어 있고 감자와 무슨 빵 조각 같은 것이 들어 있다. 이태리에 서도 야채숲 시키면 딱딱한 빵조각을 숲에 넣어 오는 것을 보았던 터라 별로 생각 안하고 먹었다. 먹다 보니 그 빵조각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빵조각 치고는 너무 부드럽고 약간 질기다. 빵조각은 국물이 배면 흐물흐물해지는 법인데. 마누라에게 맛을 좀 보라 하였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빵 조각 아니야. 돼지비계 같은데' 한다. 그러고 자세히 보니 돼지 비계를 오랫동안 삶아 흐물흐물하게 해 놓은 것이었다. 갑자기 내 심장 근처가 아픈 것 같다. 이 숲을 반 이상이나 먹었는데... 아까 메뉴에 달걀 다음에 써있던 말이 아마 돼지비계 라는 말이었구나 하고 알아채었을 때는 너무 늦었다. 하여간 사람 먹는건데 무어 어때 하고 자위를 해보지만 속은 편치 못하다. 점심은 그렇게 끝이 났다. 마누라의 스파게티는 제법 맛이 괜찮았다.

식사를 반 이상 끝내었을때 아까 기차역에서 보고 마음에 안들어 하던 바로 그 중국인 부부가 들어 온다. 아마도 자기들도 썸 직한 집을 찾다 이리로 들어온 모양이다.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와 버렸다. 돌아갈 기차는 4시 차인데 이제 겨우 한시다.

날은 춥고 더 불겉도 없다고 생각 하니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니 거기 서 있던 버스 기사 말이 기차역 가는 버스는 한 30분 기다려야 된단다. 기다려 버스를 타고 역으로 갔다. 혹시나 하고 창구 직원에게 4시 기차인데 그 전에 가는 것이 있으면 바꿔 줄수 없냐고 했더니 얼른 그러라고 하며 2시 45분 편이 있다고 하였다. 어찌나 감사한지. 'Gracias, muchos gracias' 소리를 연발하고 표를 바꾸었다. 예정보다 일찍 호텔로 돌아와 얼었던 몸을 녹이며 낮잠(Siesta)을 늘어지게 즐겼다. 로마에 가면 로마식을 따르려다.

이윽고 저녁때가 되니 또 끼니 때울 일이 문제다. 오늘은 이곳에서 마지막 저녁이니 순 스페인식으로 먹어 보자고 마누라와 의견 일치를 보았다. 후련트 데스크에 있는 아가씨에게 물어

보았다. 이 근처 걸어갈 거리에는 꽤 많은 토박이 스페인 음식 전문 레스토랑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근처에 자기가 아는 레스토랑은 없고 택시를 타고 한 10여분 가면 아주 좋은 곳을 자기가 안단다. 그래서 그리로 예약을 해 달랐더니 이내 전화를 건다. 무어라 하고 이야기하더니 몇시에 식사를 하겠느냐고. 그래 지금 6시니 한 7시 반이나 8시가 어떻냐고 했더니 이곳 레스토랑들은 제일 이른 테이블 씨팅(seating)이 9시란다. 그래서 아이구 그건 너무 늦다 우린 내일 아침 새벽같이 비행장에 나가야 되니 필수로 빨리 먹고 소화시키고 자야 된다고 하였더니, 이 삼십도 채 안된 아가씨가 나에게 혼계한다.

'외국에 가면 그 나라 풍속 습관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요?'

한방 먹었구나. '그래 나도 잘 안다. 미안 하게 되었소.'

'9시 테이블이라도 잡아 주시오.'

8시45분에 택시를 불러주어 이름이 Sixto Restaurante인 그 집으로 갔다. 실내 장식이 아주 모던 하면서도 기품이 있게 잘 되어 있다. 웨이터는 영어를 한 마다도 못 하고 메뉴는 전부 순 스페인어로 되어 있다. 아마도 관광객들이 오는 곳은 아니고 진짜 토박이 마드리드 사람들만 오는 곳인 모양이다. 메뉴를 읽을 줄 모르니 대충 짐작으로 넘어가기로 하였는데 마누라는 아직도 속이 그득 하여 술만 먹겠다.



메뉴에 Sopa mariscos 가 있는데 이건 해산물 숲이다. 그건 싫단다. 그 밑에 보니 Verdura(vegetables) 어찌구 하고 있기에 야채 숲인가 보다 하고 이인분을 주문하고 나중에 나온 것을 보니 아스파라거스, 호박, 고추, 가지 등을 썬 불에 구운 것이다. 마누라가 그대로 먹겠다고 하여 2인분을 혼자서 다 먹었다. 주 요리 부분에 보니 Carnes (meat)이 있는데 이게 다 화성 글자라 무어가 무언지 알수가 없다. 마침 낮에 돼지 비계국을 먹던 생각이 나고 이 참에 제대로 된 돼지고기 요리를 먹고 싶어 졌다. 육류 섹션을 손으로 가리키며 'Do you have Oink, Oink' 돼지 흥내를 냈더니 웨이터가 손가락으로 짚어 준다.

'Cochinillo asada con patatas y something something..'

Si, señor 내가 그걸 먹겠소. 나중에 내어온 요리는 아주 잘 구워진 아기 통돼지 구이였다. 껍질이 아삭아삭하게 아주 잘 구워졌다. 아주 맛 있었다. 내가 손님이고 내 손에 유로나 달라가 쥐어져 있는 이상은 이들이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뱃장 하나로 말도 잘 안통하는 나라들을 돌아다녔고 또 돌아 다닐것이다.

'어디 여행갔다 왔니' 하고 물어 보면 '스페인' '프랑스' '폴류갈' 하면

'너 그 나라 말 할줄 아니'하고 꼭 물어들 본다.

'아니' 하고 대답 하면

'어떻게 여행을 하고 밥을 얻어 먹느냐?'고 신기해 한다.

신기 할것 하나도 없다.

위의 원칙만 잘 지키면 웬만한 의사소통은 손짓, 발짓과 판토마임으로 다 할 수 있다.

'저만 똑똑하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 먹는다.' 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3, 1 절에 즈음해서

이 한 중(65, 미시간)

구십년전 오늘,
1919년 이었다.
내가 태어나기전 21년 이었다.
무참한 일본인들의 계획적인 침략으로
나라 빼앗긴지 십여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조들,
순국선혈들,
깜깜한 절망에 부딪쳐,
비통과 비통의 피눈물끝에
하나 둘 쓸어지던 하루 하루,
그여코,
모두 함께 일어섰던 날,
한민족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
처절하게, 맨주먹으로,
악마들의 죽음의 손아귀에서
뛰쳐나와, 길거리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뛰쳐나와, 길거리로,
외쳤도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오, 얼마나 처절한 외침이었는가?
그러나
우리 겨레를 보살피는 신에게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 정의의 외침이었는가?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그의 거센 음파의 수나미는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신의 우주 창조, 빅뱅의 주파수와
함께 어울리고
저 방대한 우주로 끝없이 펼쳐나가

그여코,
우리들의 창조주 귀청을 울렸도다.

오,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의 선조들,
순국선혈들이여,
오, 신의 은총을 받는 한민족의 얼, 영혼 이어
거룩하고, 신성하고, 용감하도다.
악마의 암흑의 죄사슬,
죽음의 깊은 계곡에서,
그들은 우렁차게
외치고 외쳤도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구십년이 지난 오늘,
그들의 외침은
하루, 한 해가 갈수록
이 당신들의 희생으로 번성하는
이 팔천만의 후손들에게는
더욱 더 크게 들려오고,
이 번잡한 혼돈의 세계 안에서도
그들 잠에서 활짝 깨워주고
그들이 보여주는 정의의 길로
이끌고 밀어주도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오,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의 선조들,
순국선혈들이여,
당신들의 비통한 외침, 죽음들은
우리겨레의 씨앗들로 땅에 묻쳐,
싹이 튼지 오래,
이제는 숲을 이루고,
그 많은 열매들을 줍기에 바쁜,
이 당신들의 후손들,
오늘 다시한번 멈추고,
묵상하노라.
그리고 기도하노라.
그토록 나라를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한민족의 얼을 생명보다 더 아끼던
당신들이여,

우리의 선조들,
순국선혈들이여,
팔천만의 당신들의 후손들은
당신들을 쫓아가리다.
그리하여
악마의 손아귀에서 신음하는
북쪽의 동포들을 구원해날까지
외치고, 외치고,
외쳐서,
우리 민족을 보살피는 그 분의 귀청을
울리고 또 울리겠오이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오,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선조들,
순국선혈들이여,
신의 은총을 그들의 희생으로 보답한,
자랑스런 그들이여,
약속하리다.
당신들께 약속하리다.
우리 팔천만 후손들,
약속 하오리다.
우리는 당신들의 외침으로
영구히 깨어나서
우리들의 할일이 무엇인지,
천국에 계신 당신들의 계시를 항상 받아,
우리민족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그분, 하느님의 은총을 되새기고
그분, 하느님에 대한 신념을 영구히 보존하여,
노력하오리다.
피와 땀으로 보답하오리다.
외치고 또 외치고
당신들의 외침의 수나미를
더욱더 크고 장엄하게
은세계 방방곡곡에
펼치고 또 펼치겠오이다.
우리들을 보살피는
창조주, 하느님의 귀청을
또 울리고, 울리고,
영구히 울릴것외이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배우자

나 두 섭(73, 남가주)

좋아하건 싫어하건 항상 옆에 있는 사람
즐거움이나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남에게 말 못할 비밀을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약점과 좋아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같이 있으면 시들해도 옆에 없으면 그리운 사람
좋았던 싫었던간에 같이 죽고 싶은 사람
죽어서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살아있을 때는 아쉬운 것, 섭섭했던 것이 많이 보여도
사별하면 즐거웠던 일, 잘못해주어 아쉬운 일들이 많이 생각 나는 사람
있으려 해도 잇을 수 없는 추억들이 간직된 사람
바라는 것은 없어도 항상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배우자.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모임날짜 및 장소: 2009년 3월 18일 저녁 저녁 6시반부터 9시 / 청해진
참석인원: 8명
토의안건:

1. 영문원고. 기존의 원측을 지키기로 함. 동창의 미국태생 자녀의 글 등은 실기로 함. 미주동창회 명예회원이기도 한 Minnesota 대학 교수 Dr. N. L. Gault Jr. 의 eulogy는 영문으로 게재하기로 결정함. 이유는 그 가족들이 읽기 때문임.
2. 예외적인 이유로 영문원고 교정을 위하여 뉴욕 근처에 있는 동창 이 세 자녀중에서 한사람을 선정하여 위촉하기로 했음. 미시간에 자원자가 있으나 출판위원회가 있는 뉴욕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이렇게 결정했음.
3. 시계탑문집 35주년 기념호를 발간하기로 결정했음. 지난 5년동안 이 미 시계탑에 실렸던 문예작품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글을 한사람 앞에 두 편씩 실기로 했음. 단 각자 \$200씩을 그 출판비용 부담에 제공하기로 했고 동창회에서 \$8,000~\$10,000 지원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 했음.
4. 항상 원고가 부족한것이 문제임. 좋은 idea 있는사람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동문, 동기 및 지부 소식과 학술기사가 부족하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